

# 速記界

第 27 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 速記界

1987—27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연구인〉	
사관으로서의 습기와 인내를 .....	최장 작전용 · 6
원로잡담	
습기와 더불어 40년 .....	김성환 · 8
—특별기고—	
정보사회와 속기업주의 정서 .....	송 현 · 14

—시—

悔恨 .....	權龍太 · 20
----------	----------

—수필—

가을하늘 .....	이도실 · 22
------------	----------

—논단—	
國會會議總設刊業務改善方案 .....	金基英 · 24

## -번역-

## 속기학교 졸업생에서

법원속기사가 되기까지..... 프랭크 O.넬슨·34

## 일본의 속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 다꾸사리 겐이치·38

## -다시 보는 열기록①

初代 正・副統領 選出..... 44

## ●周산책

영국서 찾아낸 襄說 공판 速記錄..... 51

소설보다 재미있는 영국 의사록..... 52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참석보고..... 외국어부·53

고전의 샘..... 56

## -해외 속기계-

全美속기협회총회..... 외국어부·57

일본중의원 연수기..... 강서홍·60

속기계 이모저모..... 섭외부·69

편집을 마치고..... 72

회무일지..... 73



## 사관으로서의

회장 박 권 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인년이 가고 희망에 찬 정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한속기협회가 또 하나의 뚜렷한 나이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보람과 긍지로 하나씩 착실히 그려가는 이 연륜은 바로 한국 속기계의 발자취요, 우리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해에는 서울에서 86 아시안 게임을 우리 온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으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해 아시안 게임의 경험을 잘 살려서, 88년에는 세계인의 잔치인 올림픽을 서울에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잘 치루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다시 한번 펼쳐보여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88년 서울 올림픽은 12년만에 동서 양진영이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초월하여 다함께 참가하는 세계인의 명실상부한 대제전이 될 것입니다. 이 국력을 기울이는 대 행사와 더불어 연관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우리 속기인들도 미려이나마 보태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 속기인으로서의 물론 올림픽 개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속기인의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스टे노 총회가 올해에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올 여름 이태리의 플로렌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인 우리들은 세계속기인들의 모임인 이번 37회 인터스टे노 총회에서도 우리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번에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야 하겠고 또한 우리의 속기에 관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의 속기계를 보면 세계 선진국의 속기수준 특히 속

# 슬기와 인내를



---

기의 기계화와 자동화부문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매우 뒤지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부문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해외의 유수한 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해외연수는 물론 자체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다각도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속기계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도 매우 향상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협회는 그간에 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동·하계 무료 강습을 실시하여 속기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83년 인터스테노에의 가입 이후 세계의 속기무대에 한국속기를 소개하고, 또한 속기기술의 연구개발, 속기시장의 개척 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회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힘의 결집이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을 모두 지혜롭게 또 인내로 참고 해결해온 우리의 단결력을 앞으로 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보다 알찬 내일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인들은 우리의 선배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면서 맡은 바 소임인 사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참고 헤쳐나가는 슬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참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기운이 완전한 요즈음입니다. 우리 모두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속기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사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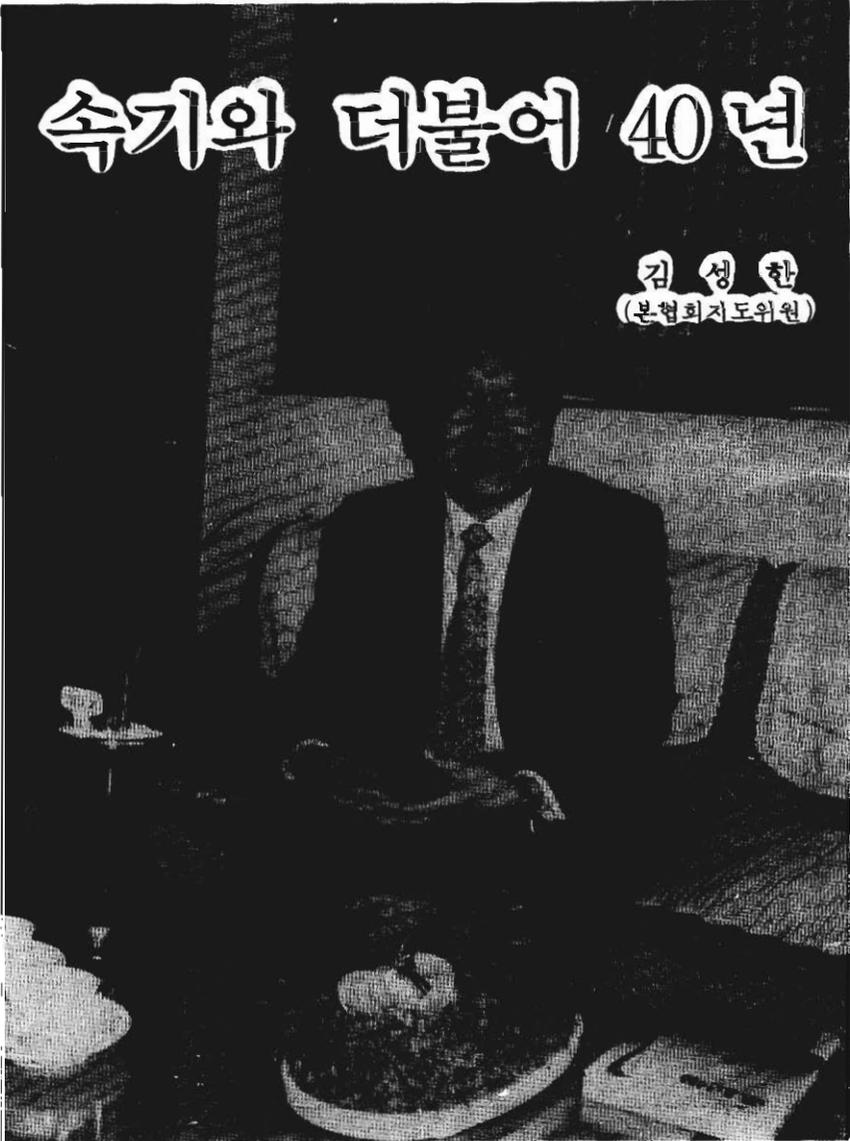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회 문교공보 위원장)

원로칼럼

# 속기와 더불어 40년

김성한  
(분협회지도위원)



## 생각·말·기록·속기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면서 살아간다. 말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데 봉사하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 없다면 아마도 이 사회는 불편해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글자는 말을 적는 기초이고 언어의 특성에 맞도록 조절된다. 나아가서 말과 글이 인간생활을 이끌어 간다고 하겠다.

인류 최고의 발명이요, 창작이라 할 수 있는 말은 얘기하고, 듣고, 쓰고, 읽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 생각하는 행위로는 또한 쓴다는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 가운데서 쓴다는 일의 참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 이럴 때 속기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어쨌든 「말이 있는 곳에 기록이 있고 기록이 있는 곳에 속기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 기호, 상표, 약기호도 속기의 필요에서

나는 속기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듯하다.

국민학교 시절 산수교과서에 소개되는 + - × ÷ = ≤ ( ) { } 등의 기호나 길가의 방향표시판을 비롯한 교통신호표시같은 것을 보면

이런 기호표시가 어떠한 뜻이나 말이나 글자를 대신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자화하는 것이구나 하고 골똘히 생각하곤 했다. 이런 약부호나 기호는 복잡한 글자나 설명을 대신하여 쓰는 하나의 약속이며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약기화된 문자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쓰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이런 기호에 관심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생활방편이 됨을 알 수 있다. 곧 속기문자는 기호의 집단화된 특수문자이며 흐르는 유선곡선문자요 점과 선이 각도를 달리하며 조화롭게 어울어져 심포니를 이루는 기술묘기문자라고 하겠다.

### 속기법 창안에 이르기까지

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일제치하에서 수학하였다. 국민학교 3·4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김찬한(친형, 작고)선생이 중학시절에 일본 와세다속기를 습득하여 학교에서 알선한 유수기업체에 사표를 내고 일본 동맹통신사(현 공동통신)의 속기기자로 근무하던 모습을 보고 나도 일본어 와세다속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거의 속기술을 습득할 무렵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후 나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자습하면서 형과 함께 우리말 한글 속기법을 연구 고안하기에 이르러

실험을 거쳐 1946년 8월 15일 세상에 『고려속기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속기실무 첫경험으로부터 40년

자화자찬이 될지 모르지만 20세 안쪽의 중학생이 우리말 속기법을 형님과 공동으로 창안하였으니 대단하다면 대단한 연구요, 발명요, 자부할 만한 특허품이라 하겠다.

나는 내가 만든 속기법을 실험도 할겸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받아쓰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속기연구에 할애하였다. 그리하여 중학시절 거의 매학년을 우등성적으로 수료케 되었다.

내가 속기를 한다는 소문이 재학 중 학교장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어느 날 교장(이회재 박사)선생님으로부터 용산중학교 교장실에서 있던 교장좌담회(주제:일민주의 교육) 속기사로 명을 받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충실하게 기록해냄으로써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것이 나의 속기처녀실무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기관에 속기사로 취업하여 6.25 당시 수년간을 그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6.25사변을 치르는 동안 서울의 속기학원을 일시 부산에서 재개설하였으나 수복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고려속기기술학원을 개설하여 후배양성에 힘쓰면서 몇 군데 직업을 갖고 있었다.

현재 교육계에 몸담게 된 연유도 따지고 보면 속기, 덕택이라 할 수 있

다. 내가 속기학원을 경영하면서 공직속기사로 있을 때 당시 숙명여자대학교의 상경대학장(정인목박사), 창덕여고교감(박원서선생) 선린상고교장(원홍균 박사)께서, 당신들 학교에서 속기학을 교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교과로 또는 특별활동으로 출강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어 각급학교 교사를 거쳐서 현재는 중등학교 교장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는 30여년의 교직이 물론 본직이긴 하나 내가 청소년기부터 심혈을 경주하여 속기를 만들고 또 교습하고 속기학 또는 속기강의록 등을 저술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한편 외도하는 것같기도 하나 이렇게 하여 속기와 더불어 40년을 살아온 것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생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앞으로도 속기와 더불어 살다가 하늘나라로 갈 것 같다.

### 수필속기의 개량과 기계속기의 연구

인터스테노총회 참관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꽤 많은 나라(구라파, 동구권)들이 속기기계, 속기타이프를 활용하여 속기실무에 임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 검토 단계에 있어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술원조나 후원으로 속기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서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고 아울러 수필속기에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최고 1분간 320자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도의 숙련 없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우리말의 특수성과 한글 문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타국어에 비해서 복잡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속기문자의 끊임 없는 개량과 연구발전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뒷받침도 없이 개인 연구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이므로 협회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모든 유관기관이나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 속기사의 지위 향상

사(士)자가 붙는 직종 중에서도 비교적 우대를 받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제리사, 무역사…… 정도의 대우 내지는 인정을 받아야 속기계의 긍지와 자부심 내지는 앞으로의 팔목할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다. 물론 자질향상이 앞서거나 뒤따라야 할 문제가 있긴 하나 완전 1급속기사가 된다는 것이 여간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겪은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호려 대한민국 수립 전인 1946년 12월에 개원된 과도정부 입법의원 당시의 속기사의 대우가 훨씬 좋은 처우로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다.

중대한 나라의 사료기록의 사관(史官)으로서나 기타 속기사의 직무

가 기록문화 보존 내지는 기록화하는 중대한 직책임에 비해 너무나 소홀한 일반직 대우 정도에서 머문다면 앞으로의 속기계 발전에도 크게 저해되는 일이라 하겠다.

### 사이비학원의 문제

여러가지 제언 내지는 제안사항이 많으나 지면 관계로 몇가지 제목들만을 열거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① 속기의 저변확대와 속기교육의 내실화 문제.

② 속기의 수요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③ 기계 기술 발명특허권 보호와 같은 속기법 창안권의 법적인 보호

④ 방송 통신 신문 잡지사 기자들의 속기부전공습득 내지는 현직 기자의 속기연수.

⑤ 법원서기국 서기 업무에의 속기도입.

이 밖에도 속기의 학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 있어 상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도하 시중 신문광고에 많은 속기사 양성기관에서의 수강생 모집광고에 너무 과대 광고 내지는 어느 교육처라고 꼬집기는 어려우나 사이비 속기교육기관에서 실험단계조차 거치지 않은 속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이에 뜻을 두고 배우려는 초심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는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속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속기

교육사업이라면 몰라도 모처(?)에 한 사람도 취업시키지 못한 유치한 속기교육기관이 모처(?)를 비롯한 취업알선 운운……하는 일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로서 앞으로 속기법의 개량 개선 등이 있거나 도태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

를 바란다.

우리 속기협회의 무한한 발전과 회원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변치 않은 글을 맺는다.

(고려식속기창안. 현 홍익여중교장)

**알립니다.**

## INTERSTENO 제37차 총회 참가 신청 안내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INTERSTENO 제37차 총회가 이태리의 휴양 도시 플로렌스에서 금년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플로렌스 총회는 INTERSTENO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이니만큼 역대 어느 총회보다도 성황이 예상됩니다. 평소 속기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우리나라 속기계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선진 외국의 속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1. 일정 : 1987년 7월 11일~17일(8일간)
2. 장소 : 이태리 플로렌스
3. 접수 : 본협회 외국어부(전화 788-2471, 김기영)
4. 마감 : 87년 4월 15일
5. 예상경비 : 1인당 250만원 정도



\*전문속기사양성기관  
(청주시교육청등록 1133호)

청주속기문화 발전의  
산실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주소 : 청주시 사직동 166-30  
위치 : 사직동 로타리 전원소극장옆  
전화 : (0431) 64-8752

축 개 원 1 주 년

국회속기사양성소동문회

# 정보사회와 속기업무의 전산화

송 현

(시인, 한글기계화추진회장)

## 1. 한국속기의 우수성

세계에서 고유한 자기네 글자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말을 손쉽게 빨리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한글 속기도 있다. 이처럼 과학적인 한글과 과학적인 속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한글 속기는 강준원 등의 선각자에 의해서 창안된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량 발전되어 와서 오늘날은 국회속기사들이 그 주축이 되어 한국속기계의 중요한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글 속기는 분당 320 내지 350자(초당 5.5자)를 적을 수 있으며, 순간 속도로는 약 450이상이나 적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한글 속기의 우수성의 일면을 잘 말해 주는 좋은 보기라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시절부터 제헌 국회 이래의 모든 국회 의사록은 속기법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되어 있다. 이는 속기인들이 단순한 기록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한 사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왔다는 좋은 증거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글에서 평소에 한글 속기가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다가올 정보 전쟁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속기업무의 전산화의 일단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 2. 쓰는 시대에서 치는 시대로

오늘날을 정보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정보전쟁사회라고도 한다. 정보사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글자를 쓰는 방식이다. 즉 종전에는 글자를 <쓰는 시

대)였다고 하면, 정보사회는 글자를 <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쓰는 차원과 치는 차원은 근본에서 서로 다르다. 한쪽을 땅에서 <기는 차원>이라고 하면, 한쪽은 하늘에서 <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만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자기나 컴퓨터를 열 손가락으로 치는 정보사회에서는 속기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시급한 한글 전용

우리나라의 속기는 워니워니 해도 국회 속기록이 그 대표적인 보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속기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한문 혼용이다. 그렇다. 속기업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은 바로 국한문 혼용이다.

참고로 최근의 국회 속기록을 간단히 살펴보자.

朴議員께서 첫번째로 第5共和國 政府가 提示한 施政方針을 總括하고 그 業績과 그리고 앞으로의 課題가 무엇이나 하는 데 대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제131회 제7차 국회의원회록)

위의 회의록에서 議員, 第5共和國, 政府, 提示, 施政方針, 總括, 業績, 課題, 質疑 등의 단어를 한글로 써도 얼마든지 뜻이 통할 뿐 아니

라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이런 단어까지 한자로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면다고 해도 합리화될 수 없다. 물론 이밖에도 대부분의 한자로 쓴 단어들도 한글로 써도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알아들었던 말을 글자로 쓸 때는 한자를 섞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도 타당하지가 않다. 하루 빨리 국회속기록이 한글 전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한문자를 괄호 속에 넣어 쓰는 정도라면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

### 4. 속기의 현대화 문제

속기의 현대화란 속기 그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량하는 일과 속기에 따르는 각종 업무를 현대화하는 일로 양분해서 말할 수 있다. 속기의 개량 발전은 속기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속기를 하는 방식, 즉 수단을 현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속기를 정보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속기업무의 전산화를 들 수 있다. 속기업무의 전산화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속기 타자기의 개발이요, 다른 하나는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이다.

## 1) 속기타자기의 개발 문제

속기 타자기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속기 전용 타자기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일반 타자기를 속기에 바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로마자의 경우에는 속기 타자기가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되어 실용화하고 있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속기 타자기가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서 연구되긴 했지만 실용화된 적은 없는 실정이다.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자 자체의 과학적 우수성과 한글의 과학성을 최대한 살린 과학적인 3벌식 한글 타자기를 더욱 연구 발전시킨다면 한글 타자기를 속기 타자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타자기의 생명은 글자배열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자의 속도는 글자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영문 타자기의 경우 그동안 써 오던 표준자판(U.S.K)보다 드보락 박사가 개발한 드보락 자판(D.S.K)은 약 30%나 속도가 빠르다. 1984년에 미국 연방표준국에서 드보락 글자판을 표준판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무려 110년 동안이나 써오던 종래의 표준자판을 버리고 과학적인 드보락 글자판을 표준판으로 채택한 것은 드보락 타자기의 입력 속도가 약 30% 빠르기 때

문이다. 입력 속도의 빠름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100년 이상 써오던 것을, 그리고 전 세계에 수천 수억 대의 타자기와 컴퓨터 등의 글자생산기계들이 보급되어 별 문제없이 실용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버리는 결단을 내린 것은 앞으로 정보전쟁 사회가 되면 입력 경쟁에서 승패가 날 것을 예견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덧붙여 둘 것은 오늘날 타자기의 개념은 수동타자기 개념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컴퓨터와 타자기를 메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 2) 워드프로세서의 도입

워드프로세서란, 데이터프로세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만든 말인데, 우리말로 적당한 것이 없어서 편의상 문서작성기, 문서편집기 등의 구차한 말로 번역하기도 한다.

나는 약 십여년 전부터 한글타자기를 써오다가 3년 전부터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명론도 쓰고, 동화도 쓰고 한글기계화에 관한 각종 논문도 쓴다. 워드프로세서의 편리함때문에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돈을 찍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이 워드프로세서의 편리함이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속기제도 이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이 불가피하리라고 본

다. 워드프로세서를 속기업무에 도입한다면 속기계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타자는 빨리 치다가 혹시 틀린 글자가 있으면 고치는 일이 불가능하다. 100장 분량의 타자를 쳤을 경우에 틀린 것을 고치면 다시 이를 정서해야 한다. 그러자면 또다시 100장 분량의 치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는 틀린 것을 화면상으로 고치는데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손쉽게 고칠 수 있고, 고친 것을 디스켓에 담아두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불러낼 수도 있고, 또 이를 찍을 수도 있다. 물론 찍을 때도 원하는 부수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완성된 원고를 인쇄소에 넘길 때도, 종이에 찍은 원고를 넘길 필요없이 원고가 담긴 디스켓을 바로 넘기면 된다. 그러면 인쇄소에서는 원고가 담긴 디스켓을 사식기에 넣어서 글자의 크기만 정해서 단추 한두 개만 누르면 그대로 사진식자가 된다. 그러니까 식자공이 일일이 원고를 보고 활자를 한자 한자 찾는 일도, 타자수가 원고를 보고 다시 치는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가 않다.

현재 국회 본회의의 속기록은 그 다음날에야 나오고,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은 15일 정도가 지나야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속기사가 속기를 한 것을 다시 번문을 하여 이를 취합한 뒤, 편집계에서 검토를 한 뒤에 인쇄에 넘

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만약 속기업무에 한글워드프로세서를 도입한다면 보름이 걸리는 일도 2~3일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밖의 문제

### 1) 외래어 표기 방법 문제

현재 우리나라 속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 지역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외래어를 적을 때 꺾쇠 괄호를 쓰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일반 출판물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인데 유독 국회 속기록에서 고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실악관광호텔”이란 단어를 쓸 때는 뉴자에는 「뉴」라고 써야 하고, 실악과 관광은 한자로 쓰고, 호텔은 꺾쇠를 넣어서 「호텔」이라고 쓰는 실정이다. 그냥 꺾쇠없이 한글로 써도 될 것을 굳이 「뉴」  
 瀛觀光「호텔」이라고 쓰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런 비현실적인 것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 2) 속기사의 대우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속기사를 10년 쯤 하면 6급 공무원수준의 봉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속기사를 10년 쯤 하면 하원 의장의

연봉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그만큼 속기록의 가치와 속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속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또 속기사에 대한 대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이 유능한 인재가 속기제로 많이 물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속기가 발전하고 또 속기가 발전하는 것은 의회 발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5. 맺는 말

정보사회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대부분 정보는 문자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출력된다. 정

보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적인 문자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출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과학적인 한글과 한글 속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보전쟁 사회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한글기계에 의한 속기의 연구 개발, 속기업무의 전산화, 한글 전용 문제 등의 문제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속기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로써 속기계가 눈부신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속기계의 발전을 위해서 속기인들 스스로의 끊임없는 연구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뜻있는 이들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1987.3.3)

어떤 의사가 <이 잡는 특효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한 사람이 그 약을 사러 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 약을 쓰는 거요?」하고 물었더니 의사는  
「이를 잡아 가지고 주둥이에다 이 약을 바르면 금방 죽어 버립니다.」  
하고 설명했다. 손님이  
「그보다도 이를 잡아서 으스러뜨리는 편이 간단하지 않소?」하고 말했다.  
더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런 처방도 있기는 하오..」

## 속기요금안내

1982. 5. 1 시행

속기 기본료	1 시간 당	100,000원
녹음 재생	"	110,000원
전문 분야	"	130,000원
외국어 속기	"	150,000원
요점 속기	"	8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 悔 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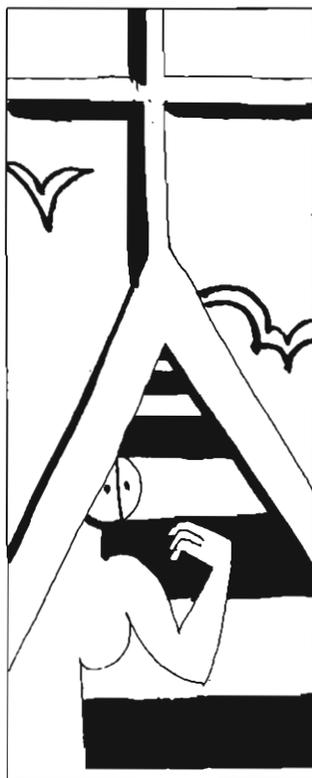
權 龍 太

나이 더할수록  
빈잔에 술을 적게 채우는  
이치를 이제사 알것다.

살아갈수록  
자꾸만 작아져 가는  
나의 눈 속에  
항상 눈물이 고여가는  
이치도 이제사 알것다.

언제나 더운 입김으로  
내몸을 덥혀주던  
걸음마로 다시 시작하는  
당신의 閃光을 이제사 알것다.

지나 놓고 보면  
모두가 뉘우침뿐인가.  
아무리 뜨거운 눈맞춤 있어도  
미흡한 濁症으로 남아  
자꾸만 타오르는 불길을  
물줄기로 잡지 못하는  
이치도 이제사 알것다.



사랑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빈가슴에 스며드는  
물보라로 피어남을  
이제사 알것다. 알것다.

#### 노트

30여년 동안 詩를 쓴다고 해왔지만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썼느냐 하는 자문자답을 하게 된다.

불혹을 넘기며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실의와 좌절 가운데서도 시는 나에게 하나의 구원이었으며 결코 버릴 수 없는 신앙이었다.

지성의 거인 로맹·롤랑의 말씀 가운데 위대한 예술은 항상 고난 속에서 생성되었다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너무도 행복한 고뇌 속에 안주해 왔다는 것을 늘 자성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난 연말 또 한 해를 보내고 아쉬움속에서 점점 각박해 가는 세상 가운데 和淨의 자리라도 마련하고 싶은 생각에서 처음으로 詩畫展을 열었다.

이 「悔恨」은 그때 전시된 작품 중의 하나로서 삶에 대한 본질의 추구하고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후회와 고뇌를 형상화해 본 것이다.

# 가을 하늘

이 도 실

## I

추석 전날로 기억된다.

나는 가을 하늘의 청명함에 “아!”하고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이전에는 그러한 청명함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날은 하루종일 나의 입에서 찬탄의 말이 그치지 않을 않았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대하고 그만 마구 들떠버린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하늘을 좀 보세요. 너무……” 끝말도 잊지 못한 채 나는 또 다시 그 청명함에 빠져들곤 했다. 어떤 이는 내가 가엸다는 듯 가을에는 항상 하늘이 이렇게 맑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그 동안 눈을 감고 살았나 보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나의 주위에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치고 있다 해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음이다. 마음의 눈을 감고 시간에 쫓기어 그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섭섭해진다.

## II

추운 겨울날, 그 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다.

국회의사당의 그 멀고 먼 별판길을 걸어들어오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 붙는 줄만 알았다. 저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되기에 충분한데 세찬 바람마저 나를 위축시키고 있었다. 자라목을 하고 찾아들어간 곳에서 나는 속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속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을 누가 알았으랴.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다니.

그후, 속기에 매달려 1급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돌이켜보니 1년여 시간 동안 내가 본 것이 속기밖에 없었음에 나는 또 한번 놀랐다.

## III

하여간 나는 감사한다.

속기를 배우게 되어 속기과에 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눈앞의 넓다란 창을 통해 펼쳐진 하늘, 산,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게 됨을. 그래서 이제나마 가을하늘의 청명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됨을.

이렇게 해서 나의 2막1장은 시작된 것이다.

아기들은 배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꼬마가 진리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날, 아빠에 의해 무작정 물에 집어 넣어진 어린아이가 발버둥치다가 멋지게 헤엄을 칠 수 있게 되는 날, 그래서 아빠의 뜻을 깨닫게 되는 날.

그들의 세상은 달라지고 마음의 눈도 조금씩 떠지리라.

가을하늘은 나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국회 속기과)

## 國會會議錄發刊業務改善方案

金 基 英  
(외국어부이사)

### I. 序論

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承政院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朝鮮王朝實錄을 편찬할 때 이것을 자료로 삼았다.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한 관리는 注書로서 注書가 기록한 원본이 史草이다. 사초를 쓰기 위하여 注書들은 그들 특유의 서체를 개발하여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亂書體를 사용하였고 淸動詞는 생략하는 등 지금의 速記文字와는 다르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기록을 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연구 노력을 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옛 조상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모습을 연구하는 데 기본사료로서 승정원일기를 꼽게 된다.

국회에서 會議錄을 발간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한 시대의 상황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역사적 史料를 남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상

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로 삼기 위해서 또한 장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구성원 이외의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국민에게 회의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비판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신속히 발간 배포되어야만 한다.

制憲國會 이래 40여년간 큰 무리 없이 회의록 발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사회여건에 따르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의록을 요망하는 國會議員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의록 발간업무를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회의록발간업무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야도 다양하고 개선방안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연구에서는 현 인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회의록

발간업무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데 국한하고자 한다.

## II. 議會速記歷史

B.C. 52년 키케로(Marucus Tullius Cicero)의 命을 받아 그의 제자인 티로(B.C. 94—A.D. 4 Marcus Tullius Tiro 인류최초의 속기 창시자)가 로마 元老院에서 카티리나(Catiline)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토(Cato Younger)의 발언을 기록한 것이 의회에서 속기방식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다. 물론 당시의 속기는 현재와 같이 全發음을 기록할 수 있는 속기문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 기록하는 등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1772년 英國議會는 속기사들 회의장에 동석시켜 議事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일반에게 정확한 회의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당시 영국하원은 院에서 행해진 토론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강하게 주장하여 왔으나 王權보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자 토의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一字一句 빠지지 않고 정확히 기록하는 속기록 漢서어드(Hansard)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美國은 英國移民者에 의해서 속기가 보급되어 1789년 3월4일 뉴욕에서 개최된 聯邦議會 제1차 회의에서

부터 속기방식에 의해서 회의록을 발간해 오고 있다.

日本은 1882년 다쿠사리(田鎖綱紀)에 의하여 日語用 속기법이 개발되어 1890년에 개원된 帝國議會 제1차 회의에서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衆·參議院에서 속기록이 발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6년 立法議院부터 속기업무가 시작되어 1948년 5월31일 개원된 制憲國會 제1차 회의부터 속기방식에 의한 회의록을 발간함으로써 美·日과 더불어 議會 草創期부터 속기록을 갖고 있다.

## III. 英·美·日의 議會速記業務現況과 우리나라 國會와의 比較

### 1. 英國

영국하원 속기국(Department of the official reports)에는 편집장(Editor)을 비롯하여 주무속기사(Senior reporter) 10명, 속기사 18명, 번역사(Transcriber) 25명, 기타 20명 등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회의 속기록은 익일에 Daily Hansard로 발간하고 이를 완전히 교정하여 1주일마다 종합본으로 Weekly Hansard를 발간한다.

속기사는 2인1組가 10분씩 기록하며 야간의 일정시간부터는 5분씩 기록한다. 교대방법은 첫번 속기하는 자가 正速記士(Duty reporter)가 되고 다음 차례의 速記士는 보조속기

사(Check reporter)가 되어 정속기사는 발언내용을 기록하고 보조속기사는 같이 속기하면서 의원성명이나 잘 알 수 없는 단어 등을 체크하여 정속기사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다가 교대시간이 되면 보조속기사가 정속기사가 되고 먼저 정속기사는 퇴장하고 제3의 속기사가 보조속기사가 된다.

회의장을 나온 속기사는 문법이나 말의 의미, 문맥, 명백히 잘못된 發言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면서 翻譯하면 타자수가 타자한 후 그 원고를 다시 교열한다.

따라서 속기사는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國語와 사람들의 理論을 잘 이해하고 발언내용을 어그러뜨림이 없이 번문하고 또 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고 高速度의 속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翻譯에 있어서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능력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Hansard staff의 의견이다.

이러한 우수한 속기사의 보충을 위해서 승진기회가 頂上까지 개방되어 있으며 2차대전 전에는 취재활동을 통해서 議事절차에 익숙하게 된 하원의 신문기자 중에서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신뢰도와 숙련도가 높은 노련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되는 속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缺員의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 2. 美國

미국상원에는 본회의 속기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과장 1명, 속기사 7명, 보조속기사 1명, 번역사 6명, 서기 2명, 계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 속기록은 商業速記團體에 의뢰하여 발간하고 있다.

속기사 9명중 2명은 速記監督官이며 나머지 7명이 10분 교대로 속기한 후 약 45m 떨어진 사무실로 돌아와 디타폰(dictaphone)에 속기한 내용을 느린 속도로 口述하여 취입시키면 속기사가 구술을 시작한 지 20초 안에 번역사는 디타폰 벨트를 재생하여 打字翻譯한다.

속기사와 번역사는 거의 지체없이 각자의 업무를 가장 빠른 속도로 해냄으로써 속기사의 구술이 끝나자마자 속기 원문은 일반문자로 완전히 번문되어 나오고 속기사는 구술을 끝내고 번문된 원고를 교정보게 된다. 속기사는 교정을 보면서 문장을 문법에 맞추고 삽입 또는 삭제해야 될 곳, 修文해야 될 곳, 上院規則에 적합한가 등을 점검한다.

완성된 원고는 Chief reporter인 속기감독관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며 속기 감독관은 이 원고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발언내용의 語法을 완벽한 영어로 손질한다.

상원의 경우 院의 의결 없이 의원은 그가 발언한 부분의 속기원고를 읽고 그가 원하는 단어를 添削하고 혹은 그가 발언한 전체 부분을 삭제

하고 새로운 형태의 발언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속기록은 산회 후 1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통상 정오 12시에 開議되는 上院 본회의의 하루 회의 시간은 1시간, 6시간, 14시간 혹은 그 이상 37시간이 걸린 경우에도 속기록은 산회 후 1시간내에 완료된 예가 있다.

미국하원 본회의는 속기사가 7명, 번역사 7명, 서기 2명, 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속기사 8명, 번역사 8명, 서기 1명, 계 17명이 근무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 상업속기단체에 의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하원은 상원과 달리 5분교대로 속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상원의원수가 100명이고 하원의원수가 43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상원은 회의가 질서정연한데 비하여 하원은 활기에 넘치고 비교적 동적인 의사진행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하원 본회의의 경우 7명이 5분교대로 근무하면 35분마다 속기하게 되는데 회의장과 사무실을 왕복하는데 5분, 속기하는 데 5분을 제외하면 25분이 남는데 이 사이에 구술 번역원고의 교열(proof read)까지 완료하고 그 원고를 들고 회의장에 다시 들어가 발언의원에게 참조시켜 정정가필케 한다.

상원의원은 자기의 발언을 院의 허가없이 정정할 수 있지만 하원의원은 자기의 발언을 정정(revise)하

거나 추가(extend)하려면 院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동의는 예외없이 허가되고 있다.

하원은 속기감독관이 없으며 7명의 본회의 속기사중 1명이 점검하고 있으나 다른 속기사보다 수당을 더 받는 것은 없다.

上·下院 공히 별도의 편집인은 없기 때문에 속기사 각자가 의회의 의사절차규칙을 발언내용에 적용해야 하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缺員의 보완시 속기 속도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위원회 청문회 등의 속기경력 10년 내지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유능한 속기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월급수준도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속기타자기(Stenotype)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에 의한 번문의 속기업무의 자동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CAT(Computer Aided Transcription)시스템이라 불리는 전산기보조 자동번문장치는 속기타자기로부터 생산된 속기원문 테이프 또는 카세트 磁氣 테이프를 미니콤에 입력시켜 CRT 디스플레이를 보며 편집 교정한 후 프린터로 인쇄한다. 타자수가 1시간당 8페이지를 원고작성하는 데 비해 CAT 시스템의 경우 100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다.

미국내 현역 직업속기사 2만8,000명 중 약 50%가 이 CAT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상·하원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 3. 日本

일본은 중·참의원 모두 記録部に 속기1과에서 속기4과까지 4개과를 두고 있으며 속기감독, 속기부감독, 주임속기사, 속기사, 속기사보로 직명이 나뉘어 있고 속기 실무인원이 참의원 108명, 중의원 120명, 교열 기타 인원이 참의원 26명 중의원 35명으로서 총 참의원 134명 중의원 155명이 회의록발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회의 속기록은 회의 후 24시간 이내에 발간배부하고 위원회회의록은 1주일 후에 발간배부하고 있다.

속기는 2인1조가 10분 내지 5분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대근무토록 조정하고 있다. 속기를 끝낸 속기사는 직접 번문에 착수하며 원고가 작성되면 교열을 담당하고 있는 속기감독관에게 보낸다. 속기감독관은 처음부터 회의에 참관하여 회의과정과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을 메모하였다가 원고교열시 참고하게 된다. 교열시에는 번문의 정확성 전후문맥의사양식에 맞는 문장인가 등을 확인하며 발언자, 정부관계자, 언론사 등으로부터의 원고열람요구를 처리한다.

한편 조사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속기사가 원고를 번문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며 의사일정, 부의안건명, 출석자명 등

회의록체제를 정리한다.

10분 속기한 것을 원고화하는 데는 약 2시간 반이 소요되고 2인이 1조가 되어 속기하는 것은 정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며 帝國議會初 속기업무 개시 이래의 전통이다. 완성된 원고는 인쇄과로 넘겨지며, 속기과는 인쇄와 교정은 완전히 인쇄과에 일임시키고 인쇄된 회의록을 인수하여 회의주재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 배부한다.

일본의회의 속기업무중 특색은 속기감독관제도로서 속기감독중 조사담당자는 기록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새로운 용어는 카드화하여 용어집을 발간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중요사건도 스크랩하여 정리하여 둘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관계서적을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고 교열담당자는 처음부터 회의에 참관하여 속기사의 誤聽 誤記 등으로 인한 기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대근무로 인한 전후문맥의 불일치 등을 조정하여 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속기과의 업무는 속기감독관의 원고교열로써 끝나며 속기감독관은 속기사 출신만이 담당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국회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편찬국 속기과에 과장 1명, 제장 8명, 속기담당직원 66명, 편집담당직원 25명 등 계 1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회의 회

의록을 비롯하여 국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회의록은 회의 다음날 발간 배부하고 기타 위원회 회의록은 25일 전후하여 발간하고 있다.

속기사는 2인 1조가 본회의의 경우 10분, 위원회의 경우 20분씩 기록한다. 속기를 마친 후 서로 속기 원문을 대조한 후 직접 번문한다. 번문이 완료되면 녹음검토 후 계장에게 제출하며 계장은 여러 組의 원고를 취합하여 번문의 정확성, 전후 문맥의 일치 등을 점검하여 편집담당으로 이송한다. 10분 속기한 것을 원고화하는 데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편집담당에서는 참석자 명단, 보고사항 등 의사내용 이외에 회의록에 게재할 사항을 비롯하여 회의록의 체계를 정리해서 인쇄소로 넘긴 후 교정을 보고 재교 후 속기사에게 최종교정을 보게 하여 인쇄를 완료한다. 납품된 회의록에 회의주재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필요한 곳에 배부한다.

英·美·日 의회의 회의록발간업무와 우리나라 국회의 差異點을 살펴 보면 英·美에서는 속기사가 기록과 교열을 담당하고 원고작성은 별도의 번역사가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韓·日에서는 속기사가 기록과 번문을 담당하고 교열담당도 별도로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열담당자의 수가 적고 다른 나라에 없는 편집담당도 별도로 있다.

각국 속기사의 역할의 차이는 채

용과 대우면에서의 차이로 나타나서 英·美의 경우 속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 충분한 실무경험과 고도의 지식이 전제되고 속기속도시험이 없다. 채용이 되면 대우도 좋다. 그러나 韓·日의 경우 신규채용시 실무경험이 전제조건이 아니며 속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채용된 후 1년후에 속기사로 승격할 자격이 생기고 속기사로서 3년간 근무하면 주임속기사로 승격할 자격이 생긴다. 승격할 때에는 속기시험을 실시하며 주임속기사로 7년이 경과하면 속기副監督이 될 자격이 생기고 이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 속기감독관이 되면 교열업무를 담당하여 쌓은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며 속기사는 행정직에 비하여 급료면에서 월등히 우대되고 있고 昇格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보자나 경험자나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우도 별다른 것이 없다. 특히 미국이 전체 인원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속기기록을 상업속기단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 있고 디타폰의 사용으로 번문시간을 단축시킨 데 그 원인이 있다.

본회의속기기록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음날 발간되고 있으나 그 작성과정에 차이점이 많고 위원회속기기록은 우리나라가 가장 발간이 늦고 한자 사용으로 手筆翻文을 하고 있는 韓·日 양국이 회의록을 발간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국별인원대비표

국	별	속	기	번	문	교	열	편	집	기	타	제
영국	상 원	28		25		1				20		74
미국	상 원	7		6		2				2		17
	하 원	7		7						2		16
	하 원 위원외	8		8						1		17
일본	중의원	120				21				14		155
	참의원	108				14				12		134
한국	국 회	66				6		25		4		101

국회회의특별간담업무개선방안

1. 주요골자

현재 속기과에 편집제1~제2담당과 속기제1~제6담당인 것을 속기제1~제8담당으로 개편하여 속기 편집업무를 통합하여 각 담당에서 회의록발간업무를 일관작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 기대효과

가. 회의록의 정확성 제고

현재 속기담당직원만 2인1조가 되어 회의장에 들어가 10분 내지 20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바 전체 회의분위기 파악이 어려운 관제로 문장의 전후연결이 잘 안되고 오청 오기 가능성이 크므로 회의장에 능력 있고 경험많은 직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시켜 현장을 참관케 한 후

現場感을 가지고 교열 및 편집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회의록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다.

나. 원고의 신속한 인쇄소이송

현재 속기담당에서 전체 원고를 모아서 교열한 후 편집담당으로 이송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내용중 일부 확인할 사항이라든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원고가 묶이게 됨으로 속기 편집업무를 통합하여 각 담당에서 일관작업으로 처리하면 속기담당에서 편집담당으로 원고를 이송하는 데 따른 시간의 지연이 없이 작성된 원고를 부분부분 교열 편집되는 대로 즉시 인쇄소로 넘겨 인쇄에 착수하게 함으로써 회의록을 신속히 발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재 속기사로 신규채용되면 主務의 도움을 받아 修習기간 없이 즉시

회의장에 들어가 속기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규직원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주무에 의존하여 일하게 되고 주무는 그 신규직원이 훈련될 때까지 2중의 업무부담을 안고 일하게 된다. 또한 신규직원이나 고참직원이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참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속기담당에서 원고가 이송된 후 편집담당에서 업무가 개시되고 속기담당에서 脫稿가 된 후에도 편집담당에서는 발간까지 상당기간 업무가 계속되므로 일정시점에서 볼 때 업무량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신규로 채용되면 일정기간 교정, 자료수집 등 보조업무에 종사하다가 副務속기사로 회의장에 출입하고 주무로 昇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교열담당으로 승격하는 능력의 성숙도에 따라 難度가 높은 직무로 점차 옮겨가며 담당토록 함으로써 사기도 높이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교열담당이 된 후에는 일정분야의 회의에만 참여케 하여 專門人을 양성하도록 하면 始終 업무량도 고르고 인력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다.

#### 라. 의원활동보좌容易

현재 의원이나 기타 관계자가 속기록 원고의 열람이나 복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원고가 속기담당에 있는지 편집담당에 있는지 혹은 인쇄소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리저리 알아 봐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속기 편집업무가 통합되어 발간업무가 일

원화되면 속기록을 찾는 의원이나 관계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마. 업무자동화에 대비

현재 회의록발간업무는 수필속기, 수필번문, 활판인쇄의 과정을 거쳐고 있다. 1986년부터 일부 전산인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모든 과정이 수동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발간업무의 자동화는 여러 단계가 있겠으나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실현가능한 방안은 수필속기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翻文入力 편집 교정 프린터에 의한 草稿出力 대량인쇄의 과정이라 하겠다.

국내 워드프로세서의 기능향상 규격표준화 가격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 사무실에서 속기, 번문, 입력, 편집, 교정,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속기 편집업무의 통합운영은 자동화시스템 도입의 전제가 되는 속기과의 編制라 하겠다.

### 3. 개정규정(안)

國會事務處事務分掌規程중 제15조(속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속기과) 속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기제1담당 내지 속기제8담당의 業務分掌중 위원회 분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속기제1담당

- 가. 회의록발간업무의 기획
  - 나.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다.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 라. 보존회의록 관리.
  - 마. 회의록 배부.
  - 바. 국내서무 및 다른 과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속기제2담당
- 가. 국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내무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 다. 속기사양성소 운영.
3. 속기제3담당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농수산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 다. 회의 녹음 및 통제.
4. 속기제4담당
- 가. 특별위원회(예결제외), 재무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재무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5. 속기제5담당
- 가. 경제과학위원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경제과학위원회, 건설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 다. 회의록 제본.
6. 속기제6담당
- 가. 외무위원회, 상공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외무위원회, 상공위원회 속기, 번문 및 편집.
7. 속기제7담당
- 가.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8. 속기제8담당
- 가.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의 발간, 전재, 복제.
  - 나.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익일 발간회의 및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의 속기, 번문 및 편집.

#### 4. 경과조치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지금 현재 편집담당직원의 처리문제와 인사규칙상의 속기직 행정직의 정원관리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본개선방안이 현 제도내에서 인원과 예산의 변경없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만으로 회의록 발간업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므로 현인원과 속기직 행정직의 변동없이 우선 각 담당에 고루 배치하여 현 편집담당직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참관 후 교열 편집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교정은 현 편집담당직원과 속기담당

직원이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본개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기담당으로 경험이 쌓여 회의록발간업무등 모든 면에서 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참관후 교열 편집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운용면에서 점차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世界の速記歴史(1965 스위스 라시느)
2. 會議錄事務提要(1968 日 佐藤 忠雄)
3. 速記總覽(1972 大韓速記協會)
4. 速記界(大韓速記協會 會誌)
5. N.S.R(美國速記協會 月刊)
6. 日本の速記(日本速記協會 月刊)

---

한 사나이가 가르런히 놓인 세 개의 묘석 앞에 무릎 꿇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친척인가요?」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부드럽게 물어 보았다.

「이것은 나의 첫 아내의 것입니다」 하고 사나이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독버섯을 먹고 죽었지요. 다음 것이 둘째 번 아내의…… 그녀도 독버섯을 먹고 죽었습니다.」

「세째 분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지요.」

「저런, 어째서 그랬나요?」

남자는 한층 더 비통한 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아무리 해도 독버섯을 먹으려 해야지요.」

## 속기학교 졸업생에서 법원속기사가 되기까지

프랭크 O. 벨슨

역: 최 윤 정

1970년대의 암흑기! 오늘날 미국은 더욱 더 많은 지역이 속기사의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속기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기인데도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속기학교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일선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속기학교 졸업생들은 그녀의 기술과 훈련으로 이 험하고 맹렬한 공격을 견디어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특정의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남성 속기사를 찾는 것은 처음으로 화성에 휴가 가서 세계의 침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현직 속기사들은 이 중요한 분야에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이 있는지? 우리 구세대들은 우리의 직업을 택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법원 공무원이나 자유속기사 대행업체가 자

신들의 매일의 속기업무보다 졸업생을 준비시키는 데 몇달을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마지막 질문의 답은 쉬워 보인다. 물론 그것은 공정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실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과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충동적인 사람이 혼합되어 있다. “그들을 즉시 거친 일터로 보내라. 그러면 어찌되었든 속기사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오랜 정신이, 졸업생의 능력에 맞는 속기업무의 조심스런 선택이나, 동정, 충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된 훈련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훈련과 경험을 쌓는 기간 동안 상체를 벗어난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모든 형태의 회의상황 장면을 비데오에 담은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명한 속기사가

면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어떤 법정에서는 속기사가 증언의 장소, 날짜, 시간, 사건명, 선서자의 확인, 속기사 자신의 이름과 소속회사명, 그리고 증언을 담당한 변호사 이름을 카메라 앞에서 첫 진술을 하도록 지목되기도 한다. 속기사는 또한 변호사가 제기하는 조항을 읽거나 카메라 앞에서 선서자에게 선서를 읽어 주어서 선서를 따라 하도록 하는 일을 맡게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기사가 속기 이외의 기록 장치의 침입에 대해 자신의 기록을 완전하게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속기사에게 가장 바람직한 자리는 카메라 앵글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변호사와 선서증인의 말을 모두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도 속기사는 최상의 좌석배치를 주장해야 된다. 속기사는 비디오 테이프 촬영기사가 작성한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의 사본이 반드시 제공되는가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그녀 자신이 오디오 녹음을 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후에 속기기록에 대해 있을지도 모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법률세계에 있어서 승리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 법원 속기사를 이용하는 것이 승리의 한 방법이라면, 저기에는 어떤 실수도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의 정확한 복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속기계에서의 또 다른 불편은 전문가의 비싼 요금에 대처해서 변호사가 최대한의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증언을 최소한의 시간에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다. 흔히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질문이 튀어 나올 것이다.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속기사의 항의는 대개 무시된다. 가끔 속기사는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무뚝뚝한 말을 듣기도 한다. "이를 악물고 매달려라." 속기사가 젊고 경험이 없거나 여성일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변호사에게 있어 그러한 것은 별 이상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신참 속기사의 감독자는 이러한 위험을 날카롭게 알아 차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속기업무를 진행시켜 나간다. 때로는 변론 도중에 직접 중재하기 위해 그 감독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중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 중 많은 고참 속기사들은 이런 중재를 통해서 저속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참아내기보다는 유능한 법원 속기사의 권리를 확보하게 된 예를 알고 있다.

의학적인 증언은 80년대에 와서 그전보다 기록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속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에게 앞으로 기록하게

될 의학적 증언의 유형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더구나 이들에게 실무자 모임(Workers' Comp)이 처음 맡겨진 업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모임에서의 대부분의 증언들은 의학적이고 그것도 흔히는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이기 때문이다. 역시 변호사는 비용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상당히 빠른 말 속도를 유발케 하여 속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의 질에 관해서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 속기 기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직업의 식을 잃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많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게 되며 그들의 보고는 기록실에 쌓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참 속기사에게 자신들의 특성을 설명할 것이고 그들의 증언을 다루는 직업적인 방법에 대해서 속기사에게 조언을 할 것이다. 모든 변호사들은 변론 전에 의학적 보고서의 사본을 얻을 것이고 변호사나 선서증인도 그러한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읽을 것이지만, 속기사는 속기업무를 위해 그러한 사본을 제공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속기사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록을 얻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도움과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환경 영향에 관한 공청회나 에너지 생산 공청회는 오늘날 거의 일정한 틀이 잡혀 있다. 이 회의들은 특별한 전문용어의 지식이 요구

된다. 증언을 하는 가운데 많은 약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화학자, 해양생물학자, 의학박사, 그리고 많은 박사(PH. D)들이 흔히 증언하기 위해 소환되어 기술적인 차원의 보고서를 읽는다. 우리는 많은 인내를 갖고 이렇게 엄청나게 요구되는 기록업무에 대비하도록 속기학교 졸업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초보 속기사들은 자주 그들이 CAT를 사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불명들을 한다. 비록 많은 속기학원에서 CAT 겸용이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직접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어 보는 것과는 같지 않다. 속기학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CAT 장치 구입에 충분하게 투자해서 그들의 진보된 학생들이 실제 CAT 시스템 위에서 기록하고 번문하고 편집해 보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어떤 종류의 CAT 시스템이라도 학생들이 친숙해지고 그것의 능력을 인정할 정도이면 바로 훌륭한 CAT인 것이다. 사건을 한 권 만드는 것도 자의적일진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CAT 시스템에만 한정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CAT 사건은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번역이 용이하게 되었다. 심지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CAT를 사용하는 속기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고, 졸업하자

마자 대개 CAT를 다루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속기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고, 학교에서 매우 강조해야만 할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있어 의상과 직업의식에 관해 조언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완전한 속기사」로 성숙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지난 2, 3년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녀는 오직 블루진과 스웨터만 입고 다녔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유분방함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데, 만일 그녀가 현직 속기사가 되어서도 그런 식의 복장을 계속 입는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경제적인 참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대개의 기록장에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여성다운 복장이 요구되며, 졸업생들은 그렇게 입는 습관을 가능하면 빨리 익히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주나 연방의 간행물은 이 분야에 빈번한 기사와 제안을 실고 있는데 그 예로 1980년 4월과 1985년 12월 NSR에 실린 Lynn Brooks의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녀는 John T. Molly가 쓴 「성공적인 의상」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신참 속기사에게 쇼핑에 동반할 적절한 의상조언자를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법조계에서 막중한 봉사를 하고 들도 없는 영구 보존용의 서류들을 취급할 속기사에게 기대되는 책임이고 성숙

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더 많은 흥미나 도전, 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수 등을 이끌어 낼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졸업생의 눈 앞에 어른거리는 엄청난 수입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은 이제 법원 속기사이고 그래서 두세 개의 은행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물론 상당한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수입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말은 업무가 만족할 만큼 완성되어야 비로소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신참 속기사는 단순한 물질적 이유에서 흥청거리며 낭비하기 이전에 상당한 주의와 분별심을 갖춰야 한다. 돈 문제에 관해 더욱 경험이 많은 동료 속기사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고용자나 증언대리인의 주인은 속기사를 고용한 지 단지 두 세 달도 안되어서 신용대리점이나 백화점으로부터 그 고용을 확인하기 위해 걸려오는 전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속기를 배우는 학생에게 법원 속기사로의 도약에 따르는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재학시 증인속기 사무실이나 법원에서 일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서, 학교와 실무 속기사가 협력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주일에 단지 몇 시간이라도 사진복사나 직접 심부름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법원이나 선서증인사무실의 외관적인 흐름뿐 아니라 법원 속

기사와 대화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당황하는 것을 보며 또 속기라는 직업이 갖는 때때로의 침울한 분위기와 기쁨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이 실제 업무에 접하게 되면 그들은 주변환경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되며 그들의 전 시간과 주의를 세부적인 기록에 기울이게 될 것이다.

속기학교 학생이 법원 속기사가 되는 데에는 단지 약간의 고려할 것만이 있다. 만약 졸업생이 대개의

법원 속기사들이 갖고 있는 1급 자격에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가능한 빨리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그밖의 다른 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멋있고 도전할 만한, 또 보수도 많은 직업이 저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필자; CSR, RRR 前회장, 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자유 속기사회 회장)

-The National Shorthand Reporter 1986년 3월호에서-

## 일본의 속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

다쿠사리 겐이치  
역: 이 승 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회장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거 5회의 인터스테노 대회에서 일본의 속기업계의 실상에 관하여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의회와 재판의 속기록작성이 중심이 되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속기업계와 비교하여서 일본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의 여러가지 문화기관이 과도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동경에 있어서는 출판사, 서점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 조합, 단체 등이 발행하는 인쇄물을 게재하기 위한 인터뷰, 매담, 좌담회, 토론회, 연구회 등의 속기록작성 업무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다쿠사리

겐이치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경 일원에 있어서 1984년 1년간의 속기업무량은 속기시간으로 계산하여 13만2,000시간입니다. 이에 관제하는 속기사(리포터)의 수는 약 3,000명이 됩니다.

속기업무량의 내역은 의회, 재판, 회의 등 관공서의 업무가 연간 2만1,600시간이고 기업, 노동조합, 각종단체 등의 업무가 4만5,600시간 그리고 신문 통신사 관제가 1만800시간입니다. 그 이외에 출판사, 서점, 그리고 그 출판사에 관제하는 개인등 결국 작가, 학자, 저명인사 등으로부터의 의뢰된 속기업무를 모두 합치면 5만 4,000시간, 합계하여 동경의 연간 속기업무량은 13만2,000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월평균 1만1,000시간이 됩니다.

또한 동경의 속기사(리포터)의 수의 내역은 국회, 관청, 지방의회 소속의 속기사(리포터) 360명, 재판소 소속의 속기사 180명, 신문 통신사 소속의 속기사 300명, 기업 단체 소속의 속기사(통상업무 사이사이에 속기에 관제함)가 860명, 그리고 자유업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1,200명 합계 3,000명이 됩니다.

이 동경의 속기업무의 양과 속기사의 수는 약간의 증감은 있어도 4년 전에 조사할 때도 그러했고, 그러므로 앞으로 4~5년간은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속기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

만은 지난 4~5년 전부터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보고에 관련지어 서서히 아시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사무기기자동화(Office Automation)가 급격히 진전되어 잇달아 출현하는 신형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에 눈을 돌리고, 속기학습과 같은 습득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매력의 일시적으로 감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속기사(리포터)의 보수에 관해서도 보고를 드리우고 싶습니다. 먼저 관청기구, 기업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은 각각의 내규에 기초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속기요금을 받아서 속기업무를 하고 있는 속기사(리포터)의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에서는 속기업계의 대표로 조직하는 동경속기사회가 있고, 따라서 그 해의 물가지수의 변동등으로부터 환산하여 그 해의 협정요금 즉 협정속기료를 맞추어 이를 공표하고 회원에게는 이를 금액으로 명시한 협정속기요금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속기요금의 산정기준은 1시간분의 속기룩작성요금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치며 그 속기룩의 페이지수에는 관제하지 아니하고 속기시간수로 얼마다 하는 식의 시간요금제를 근 1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관용하여 오고 있음이

다.

동경속기사회는 1985년 1월1일부터 협정속기료를 1시간에 3만8,000엔(152미국달러)으로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 협정속기요금표에는 그 위에 내용의 난이, 초과시간, 기타의 추가료의 규정 등도 첨가되어 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일본의 속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일본의 속기사(리포터)들은 과거 100년 동안에 걸쳐서 연필과 종이와 훈련된 손만을 가지고 속기업무에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1910년대에 아메리카로부터 축음기가 도입되었을 때, 그리고 1930년대에 독일로부터 와이어식의 녹음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우리들은 속기업의 미래에 관하여 위기감을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가면서 속기업무의 내용의 변화에 적응하여서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초 무렵, 당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에 몇 명의 저명인사를 모아서 흥미를 끄는 좌담토론의 속기록이 게재되어 이것이 예상외의 인기를 불러일으켜 각 잡지가 경쟁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만, 반세기를 경과한 오늘도 점점 성행하여 오늘날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60여종의 월간지(년간 9억책), 게다가 25종의 주간지(년간 10억책)의 자지가 매호마

다 둘이나 셋 정도의 좌담기사를 당연한 일처럼 경쟁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속기록을 기본으로 한 강연, 강의, 대화 등의 단행본의 출판이 날을 지남에 따라 붐을 불러 일으켜 서점의 진열대에 줄을 지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인 오늘날도 더욱더 매월 10책을 넘는 신판이 줄지어 출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960년 당시에 비교하여 대략 배의 업무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한 일로서 속기사의 수도 서서히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경향에도 요즈음 정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테이프 레코더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과 그 보급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테이프 레코더의 병용에는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이 수반되었던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테이프 레코더를 병용하지 아니하는 속기업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테이프 레코더는 속기사에게 있어서 필수품의 하나로 되어 버렸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용어, 그리고 외국어의 불확실한 발연 등도 나중에 테이프를 듣고 정확히 기록할 수 있기도 하고, 속기록의 완전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속기사에게 있어서는 테이프 레코더를 병용함에 따라서 업무의 편리함이 크게

증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긴급히 원고작성을 필요로 하는, 게다가 장시간의 회의 등도 그 녹음 테이프를 나누기 좋은 부분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명의 속기사가 번문함으로써 단시간내에 두터운 회의록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서 구술하는 일도 구술자가 테이프 레코더를 잘 사용하여 녹음한 것을 받아서 이를 일시에 속기 번문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치열하게 전개되는 토론, 회의, 좌담회 등은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서 기록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속기사가 현장에 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지만 현재 나의 속기 사무소에서 부탁받는 속기업무 중에 그 35%는 속기사가 현장에 배석하지 아니하고 녹음된 테이프로부터의 속기번문 의뢰인 것입니다.

일본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많은 글자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음의 기초를 이루는 50음자가 히라가나와 또 가다가나 두 가지이고 라틴문자의 소문자와 대문자(알파벳), 그리고 숫자, 수사, 기호, 게다가 3,000을 넘는 한자가 최소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타이프라이터 정도로 재빨리, 편리하게 타자하는 것이 가능한 타이프라이터가 일본문자로도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반세

기가 지났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컴퓨터의 활용이 진전하여 단기간 안에 IC, LSI, 그리고 초LSI의 활용이 진전되어 8년쯤 전에 일본어 워드프로세서라 하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몇 개인가의 메이커로부터 발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도 크고 1대에 300만엔(미화 12,000불)이상도 하였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각각의 메이커들은 신제품의 발표를 경쟁적으로 하여 해가 갈수록 기계는 작아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또한 게다가 가격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6년 전 1979년 여름에 180만엔(미화 7,140불)으로 어떤 메이커의 일본어 워드프로세서를 중간상인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전(1983년말)에는 바로 직전의 기계보다 단수나 성능이 좋고 보다 많은 편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동일한 메이커로부터 98만엔(미화 3,920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두 대의 기계를 현재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1985년 4월 현재 일본에서는 24개의 메이커로부터 36종의 워드프로세서가 발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메이커는 일진월보하여 각각의 기종을 경쟁적으로 개량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의 시점에서는 속기사무소를 겨냥한 것은 디스플레이 장치, 기억장치(플로피 디스크)와 저기에다가 프린터를 포함하여 100만엔(미화 4,000불)으로부터 50

만엔(미화 2,000불) 정도의 기종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을 작자가 선택하여 각 속기사무소의 규모에 맞추어 40대, 20대, 10대 등 구비하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경 속기사회 회원 중에는 현재 약 60%, 금년 중에는 약 85%까지 워드프로세서를 구비하게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의 사용방법에 숙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1분 평균 30자에서 50자의 속도로 써오던 문자의 속도가 1분 평균 50자로부터 120자, 결국 배의 속도로 타이프라이팅이 가능하여지고 화면에서의 수정이 가능하여져서 좋고, 메모리가 사용되어 보다 더 아름답고 읽기 쉬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잇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속기로 많이 받을 수는 없는 터이고 일을 빨리 마무리 짓는다고 하여도 많은 일감이 주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피로도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화면을 계속하여 들여다봄으로 인하여 눈의 피로가 심하여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1회 워드프로세서 기능경쟁시험이 금년 5월12일 일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여 전국 130개소의 회장을 사용하여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당초의 예상을 많이 상회하여 총계 1만5,300명이나 되었습니

다. 그 가운데 동경도에서는 기종별 회장 61개소가 준비되어 3,598명의 참가자를 받았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워드프로세서의 보급세의 대단함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작년(1984년)초부터 각 메이커는 새로운 휴대용 소형 워드프로세서의 개발을 경쟁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수개의 대회사(메이커)로부터 일시에 3단계의 가격의 기종, 25만엔(미화 1,000불), 15만엔(600불), 8만엔(320불) 전후의 3단계의 기종을 발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1기종을 선택하여 오늘 여기에 지참하였습니다. 본체만으로 14만8,000엔(592불), 기억장치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여 대략 20만엔(800불)입니다. 물론 전전지로도 작동이 됩니다.

이 기종에는 일본어 8만단어가 기억되고 있고 키를 누르면 기체가 단어의 의미를 읽어내고 한자-가나 혼용문으로 변환시켜간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종은 영문의 전자타이프의 기능까지도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기종은 A-4 5페이지 정도의 기억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테이프레코더의 코드에 접속함으로써 타이프로 친 문장을 테이프에 기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이 타이프라이터에 재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일본에서는 이와같은 워드

프로세서가 정말로 수가 많고 기종의 종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우리들로서는 그 선택에 피로를 느끼고 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사용하기 용이한 기종 몇 가지가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기 사무소에 비치하는 기종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포터블형입니다마는 역시 글자 형도 좋지 않고, 업무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는 반면에 불안정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대략 100만엔(4,000불) 정도의 기종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속기와 관련이 있는 기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여년전부터 일본의 두 개의 대학의 연구기관과 세 개의 전기기기 메이커의 연구소에서 실험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음성용 기계가 포착하여 이를 축차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문자화하고 프린터로 인쇄하는 장치로 이 정도는 그럭저럭 가능해져서 최근 3개 메이커로부터 발매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컴퓨터의 1식은 현재 아직 300만엔(1만2,000불) 이상이라고 하는 고액인 데다가 그 성능에도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점이 남아 있고 해서 아직 일반의 실용화에는 그 앞길이 멀니

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연구도 날이감에 따라 일단은 진보해 갈 것이므로 머지 않은 장래에 언젠가는 「휴대용 음성문자화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의 출현도 결코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사 그러한 기기가 출현했다고 해도 우리들 일본의 속기사들은 금방 이 기기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서 속기업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이용해 갈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기계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계에 인간이 사용되어 간다면 인간은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보다 우수한 인간의 능력으로서 우리들이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음성용 취사 선택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복잡하게 음성거리는 잡음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음성을 빠뜨리지 않고 잡아서 적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 바로 이것이 어찌면 영원히 기계에 대항해서 속기사인 우리들이 슬득하고 넓혀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6회 인터스테노 소피아 대회(1985.

7. 17.) 제2차 회의 레포트에서-

—다시 보는 速記錄 4—

—滿場하신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의 歷史 있는 以來 처음으로 靑스러운 일을 해 왔습니다. 民族의 원수이고 우리 獨立運動의 老先輩이시며 앞으로 우리 全體民族을 구원해 주실 人物은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李承晚博士!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는 제헌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서 1948년 7월 20일 제33차 본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당시 원내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였으나 김 구를 추대하자는 의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김 구는 7월 20일 아침 단독정부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전 10시에 개의된 본회의에서, 먼저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석의원 198명중 재석의원 196명 가운데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당선(김 구 13표 안재홍 2표), 이어 실시된 부통령선거에서는 재석의원 197인이 투표했는데 이시영 113표, 김 구 65표, 조만식 10표, 오세창 5표, 장택상 3표, 서상일 1표로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조건(헌법 제53조 2항)을 충족시킨 이가 없었다. 따라서 규정에 의거 최고 득표자 2인(이시영, 김 구)에 대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시영은 133표, 김 구는 62표를 얻었고 李龜洙 1표, 무효 1표로 이시영이 초대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대통령선거 과정만 轉載한다.

○議長局長(車潤弘) 監票議員으로 指名되신 分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監票議員 着席)

지금부터 會議場 出入口를 閉鎖 하겠습니다.

(出入口閉鎖)

名牌를 配付합니다.

(上午 10時15分 名牌配付)

○副議長(金東元) 이제 宣布해 드립니다.

在席員 196 名牌 配付해 드린 것이 196 쪽 그와 맞습니다.

○議長局長(車潤弘) 監票議員이 名牌函과 投票函을 檢査해서 비었다는 것을 覓어 드리겠습니다.

(監票議員 空函 提示)

○副議長(金東元) 지금부터 投票를 開始하겠습니다.

○議長局長(車潤弘) 그러면 지금부터 呼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 차례 나오셔서 投票用紙와 封套를 받으시고 投票用紙에 記入하신 후에 投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上午 10時25分, 記錄員이 次序에 依支해서 議員을 呼名하여 呼名된 議員은 投票用紙와 封套를 受理하고 投票를 實施함)

上午 11時5分 投票終了)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 名牌點檢 計算하는 데 立會하실 議員으로 白寬洙議員 申性均議員을 指定합니다. 또 投票點檢을 檢査하는 데 立會하실 議員은 金度演議員 朱基塔

議員 李鐘麟議員 세 분으로 廣告해 드립니다.

閉函하겠습니다.

(投票函閉鎖함)

지금은 閉函합니다.

(上午 11時10分 閉函)

이제 名牌數를 宣布해 드리겠습니다.

在席 196 名牌 點檢한 것이 196 投票 點檢한 것이 196 쪽 그와 맞습니다.

지금 開票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宣布해 드립니다. 金度演 朱基塔 李鐘麟 세 議員은 唱票하는 데에 立會하여 주시겠습니다. 白寬洙 申性均 두 議員은 得票記入하는 데에 立會하여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唱票와 記入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한 票마다 부르는 대로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이어 繼續해서 「누구 몇票 누구 몇票」를 繼續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得票記入開始 途中 「徐載弼」이라고 唱票됨)

○尹致暎議員 外國 사람을 여기서 投票할 수 없습니다. 無效를 宣稱해 주시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것을 두어 두시지요. 結果를 봐서 합시다.

○徐禹錫議員 지금 徐載弼博士의 票를 無效로 할 것이나 有效로 할 것이나 하는 것은 法律上으로 크게 問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監票

員이라든지 또는 議長은 마땅히 韓國의 國籍을 갖지 않은 外國人에 대한 投票는 마땅히 無効를 宣言해야 至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웁소」하는 이 있음)

○尹致暎議員 이 다음 다른 美國 사람이 나와도 좋습니까? 그것을 說明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와도 認定해 주시겠어요?

○李聖得議員 우리 憲法에는 美國 사람을 갖다가…… 外國에 國籍을 가진 사람을 投票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李鎮洙議員 無効를 宣言해 주시오.

(場內騷然)

○副議長(金東元) 言權 주지 않습니다.

○陳憲植議員 徐載弼氏는 外國 國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國內의 사람이 아니니까 無効를 宣言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三請합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徐載弼博士는 外國人이고 우리 韓國 國民이 아닌 것을 우리가 想像하나 그것을 證據해서 韓國人이 아닌지를 우리가 여기서 分明하게 確定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알아 봐서 午後에 決定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徐禹錫議員 요전에 徐載弼博士께서 軍政의 最高議政官으로 나와서

立法議院에 와서 政黨에 관한 講演을 하면서 나는 美國 사람인 까닭에 朝鮮에 와 大統領될 수 없다고…… 다만 된다면 외국 使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던 記錄이 지금까지 分明히 남아 있습니다. 또 自己가 美國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번 自己 스스로 말한 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午後로 민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의 한 羞恥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웁소」하는 이 있음)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韓國의 國籍을 가진 사람이야만 韓國의 大統領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韓國의 國籍을 갖지 않은 이에 대한 投票하면 당연히 無効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美國의 「트루만」氏를 投票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無効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이 점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無効로 생각하는 同時에 여기에 監票하시는 이라든지 議長은 無効를 宣言하셔야만 正當한 것이며 萬一 여기서 주저하는 態度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의 한 羞恥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 動議와 再請 三請 들어왔는데 外國人인 徐載弼博士의 點數가 나온 것을 今後에 記入하지 않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 있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지

요?

○李南圭議員 可否 물을 필요 없어요.

○副議長(金東元) 動議와 再請 三請 있으니 可라 하면……

(「可否 안되요」하는 이 多數 있음)

(場內騷然)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가만히 제세요. 다 앉으세요 마찬가지이니 까……

○陳憲植議員 動議取消할터이니 議長이 宣布해 주십시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動議者가 取消한 것 같습니다. 再請 三請도 그렇습니까

(「再請 三請」한 이 應諾한다고 對答함)

그러면 지금은 議長으로서 外國人인 徐載弼博士의 點數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여기서 記入하지 않기를 宣布합니다. (拍手)

(得票呼名과 記入 繼續)

(李承晚議員 得點數 132點에 달하자 議員一同의 拍手 2分間 繼續함)

○副議長(金東元) 宣布하기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엄숙히 조용히 해 주십시오.

(得票記入 繼續)

○副議長(金東元) 投票한 結果를 지금 宣布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李承晚議員 180

金九氏 13

安在鴻氏 2

無効 1

計 196 쪽 맞혔습니다. (拍手)

잠깐 기다리시오

憲法 第53條에 의해서 大統領 投票는 在籍議員 3분지 2 이상이 모여서 3분지 2 이상의 得點으로 當選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196人的 3분지 2 이상이면 131인이올시다. 李承晚議員의 得票는 180인 것으로 3분지 2 이상의 絶對 多數된 것을 宣布합니다. 李承晚議員이 大統領으로 當選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員席 及 傍聽席에서 同時에 拍手 2分間 繼續함)

(「議長!」하는 이 있음)

○徐廷禧議員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으로 커다란 慶事를 마쳤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여러분 별로 말씀하실 必要는 없습니다마는 徐廷禧議員에게 잠깐 言權 드리고는 더 言權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重大한 일을 지낸 然後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지 말로 發表하든지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制限이 없으니까 이 한 분에게 言權을 준 以後에는 곧 休會하려고 합니다.

○徐廷禧議員 나는 歷史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지만 우리 民族의 有史以來 오늘같은 慶事가 없고 우리가

三千萬의 원수를 推戴하였고 오늘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傍聽席과 또 國會議員이 總起立으로써 우리 大統領 李承晚博士 萬歲三唱을 함으로써 우리 기쁜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이것을 動議합니다.

(「特請하시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當選되신 李承晚博士에게 이 일을 가서 말씀드려서 圓滿히 接受하신 그 후에……

○徐廷禧議員 우리의 大統領 國家원수를 모셔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겠으니 그 때에 오신 뒤에는 우리는 傍聽席과 아울러 우리 議員全體가 總起立해서 萬歲를 부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金東元) 가만히 계세요.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 있는 것은 지금 申翼熙議員과 그중 元老이신 徐廷禧議員 두 분은 李承晚博士에게 지금 經過를 말씀드리고 그런 후에 어떠한 作定이 되는지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別 異議 없으면……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申翼熙副議長하고 徐廷禧議員하고 두 분이 議長에게 가서 지금 經過를 報告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잠깐 報告 있을 때까지

지 休會하겠습니다.

(上午 11時35分 會議中止)

(上午 11時54分 繼續開議)

(李承晚議長 議事堂 入場, 議員一同拍手)

(李承晚議長 議長席에 登壇, 議員一同拍手)

○副議長(金東元) 議員들은 다 자리에 着席해 주고 傍聽하시는 이는 아무쪼록 靜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滿場하신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의 歷史 있는 以來 처음으로 있는 聖스러운 일을 해 왔습니다. 우리 民族의 원수이고 우리 獨立運動의 老先輩이시며 우리 앞으로 우리 全體民族을 구원해 주실 人物은 오직 한 분이 제십니다. 우리 李承晚博士!

오늘 우리 國會에서 推戴한 大統領은 180票의 多數로 當選되었습니다. 이 經過의 말씀을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徐廷禧議員과 같이 議長室에 가서 報告하고 우리 全體議員의 意思는 앞으로 式을 갖추어서 우리의 大統領 就任式 또는 就任辭는 次次로 格式을 갖추어서 節次를 밟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選舉를 마친 이 자리에 簡單하게 우리 大統領의 말씀을 한 마디 들기로 하고 우리는 全體가 다같이 일어나서 아까 여러분의 共同의 意思와 마찬가지로 傍聽席에 있는 우리 男女同胞 同志들과 함께 우리 大統領의 前途를 祝福하고 우리 國家의 將

來를 祝福하는 意思로 萬歲三唱하는 것을 實行하겠읍니다. 簡單히 大統領의 말씀이 있기를 紹介하고 두어 마디 말씀드렸읍니다.

○議長(李承晚) 國會議員 여러분, 大統領이라는 榮光스러운 이름으로 나에게 投票해 주신 것을 나로서는 感激하여 마지 않습니다. 어떻다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짧은 時間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께 感激한 고마운 感謝하다는 말씀을 다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本來로 大統領이라는 것보다도 獨立運動을 해서 오는 關係로 大統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첫째로 總選舉를 이 사람이 當初에 主張한 것입니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總選舉를 主張하는 것은 大統領이 되고 싶어서 總選舉를 主張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機會가 있든지 여러분께서 나 李承晚이를 「大統領候補者로 나옴시사」 할 때에 承諾하면 마치 나를 大統領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같아서 말하지 않고 지내온 것입니니다. 또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民主國이라는 것은 國民에게 第一 權利가 많다는 것입니니다. 國民만이 言論自由를 찾아서 밖에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힘쓸 사람입니니다. 投票權을 가지고서 代表를 내세우고 지금은 우리 政府를 세워 가지고 第一國회의 여러분이나 國內 여러 同胞들이 한 가지 第

一 要緊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政府가 선 뒤에는 이 政府에 무슨 風波가 있든지 무엇이 생기든지 萬全을 기할 튼튼한 政府를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니다. 그 政府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自己 個人的 榮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버리고서 政府에서 要求하는 命命이 있을 때에는 즐겁게 적은 職責이라도 맡아 볼 적에 기쁘게 榮光스럽게 感之德之해서 專心으로 일할 그 사람들이 政府에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니다. 힘쓰는 사람이라야만 自己主義를 내버리고서 民族大業을 遂行해서 나라의 일을 個人보다도 크고 團體보다 크고 무엇보다도 큰 나라의 큰 것을 健全하게 세워놓 것만 主張하고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整頓된 機關을 세워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그런 것을 다 打破하고서 그 政府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서 마치 時計를 만들 적에 큰 機械 적은 機械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해 나가는 것처럼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니다. 여러분들이 百方으로 努力하셔서 이 사람에게 職責을 맡기시는데 내 健康이라는 것이 좀 憂慮가 됩니다. 그러나 個人的 生命은 다 바쳐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信賴하시는 뜻으로 이 사람에게나 榮光을 주시고 責任을 맡겨 주신다면 感謝히

반아서 목숨이 닳는 데까지 國權을 세우는 데 極力努力하려고 합니다. (拍手)

이 사람이 國會의 議長의 이름을 가졌든지 또는 大統領의 이름을 가졌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國會 안에서 절대로 支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民族全體가 받들어 주어야만 될 것이니까 누구나 自己 智慧를 빚어내서 同胞들의 協力에 依支해서 다들 무엇이 있는지 간에 다 障害를 排除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 政府를 세워 가지고 세계에서 참 놀랄만한 政府를 만들어 놓 것만 決心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親舊가 많습니다. 다 나와 좋은 親舊들입니다. 政府組織에 있어서 몇 親舊가 나오실는지 모릅니다. 나는 精誠껏 해 드릴터이니 까 거기까지 믿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國會 안에 어떤 政黨이나 어떤 派가 있고 어떤 分子가 있고 無所屬分子가 있다는 이런 소리가 처음에 많아서 民主主義를 이끌고 나가는 데에 念慮가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 동안에 여러분들 일하신 것을 보니 무슨 問題가 나든지 討議를 해 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리 國家 建設하는 데 한 덩어리가 되야겠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憲法을 이만치 만들어 놓고 또 組

織法을 이만치 만들어 놓을 적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만치 만들어진 것은 남의 親舊 사람들도 우리들을 稱讚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을 始作한 것입니다. 이 精神을 가지고 나가면 앞으로 우리 民族의 榮光은 世界에 빛날 것으로 確實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사람에게 重要한 責任을 맡겨 주신 것을 感謝히 생각하며 여러분의 뜻으로 進行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말씀합니다. (拍手)

○事務總長(全奎弘) 지금부터 全國 女性團體聯盟에서 보내시는 花環贈呈이 있겠습니다.

(李承晚博士에게 花環贈呈, 議員一同 拍手)

다음은 女子國民黨에서 보내시는 花環贈呈이 있겠습니다.

(李承晚博士에게 花環贈呈, 議員一同 拍手)

다음은 親族代表 되시는 禹濟夏께서 花環贈呈이 있습니다.

(李承晚博士에게 花環贈呈, 議員一同 拍手)

(徐廷禧議員 先唱으로 大統領李承晚博士 萬歲三唱)

(徐廷禧議員 先唱으로 大韓民國 萬歲三唱)

○議長(李承晚) 지금 會議를 中止합니다. 午後 2時에 다시 開會될 것입니다.

(下午 12時10分 會議中止)

# 圓周 迷 案 錄

## 영국서 찾아낸 裴 說 公 判 速 記 錄

1976년도에 신보(편집註: 대한 매일신보)의 영인작업을 위해 이 신문의 소장상황을 조사하다가 나는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친 배설의 공판기록이 신보에 소상하게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1908년도의 재판내용은 국한문판과 한글판에 다같이 무려 41회(6월20일~8월7일)에 걸쳐 연재가 되어 있었다. 기사를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면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맛보았다.

우선 공판의 내용이 여간 드라마틱하고도 흥미롭지가 않았다. 재판정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주인공 배설을 비롯해서 총무 양기탁, 상해에서 이 재판을 위해 한국에 왔던 영국인 판사와 검사, 일본 고오베에서 온 영국인 변호사, 통감부측의 일인 고위관리, 의병장이었던 閔宗植, 그리고 평민 등 실로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재판정에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영어통역을 맡았던 사람은 해방 후에 정치가로 유명했던 金奎植이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영국의 재판관들이 진행하였으므로 세 나라가 관련된 이 진귀한 재판이 뜻하는 바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런데 재판의 가사를 읽어 나가면서 나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3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공판 내용을 이처럼 상세하게 게재하자면 신문기자가 아니라 속기사가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공판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시 영국인 속기사가 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는 신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영국 법원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해 나가자니 영국의 법원에는 어디엔가 공판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인들이 자료를 보관하는데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는 나는 이전에 영국에 몇달 머무는 동안 직접 본 일이 있었다.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기록이나 기념물들을 보존하는 것은 국민성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보였

을 정도였다. 그러나 상해에 있던 영국의 법원 기록이 본국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다면 어디인가 그것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나는 서울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았다. 주한 영국대사관에는 언론인 출신 朱相彥공보관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엉뚱하고도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의 부탁을 그는 성실하게 들어 주었다. 몇 차례에 걸쳐 영국 쪽으로 문의편지를 보낸 끝에 드디어 퍼블릭 레코드 오피스(Public Re-

cord Office)라는 곳에 배 설에 관한 기록들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또 다시 몇 차례에 걸친 문의편지가 오고 간 끝에 마침내 나는 귀중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었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네 롤이나 되는 분량이었다. 무슨 일이거나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는 영국의 공공기관에다 서울에서 편지로 요청한 자료가 내 손에 들어오는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월간조선(86. 2월호), 「抗日영국언론인, 襄毅의 뿌리를 찾아서」 중에서-

## 소설보다 재미있는 영국 의사록

영국의회의 議事錄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소설보다 더 재미있다」는 명들을 한다.

그것은 폭력의 解毒劑인 유모어와 재기넘치는 機智가 있는가 하면 기막힌 임기응변들을 거기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에 바탕을 둔, 드릴있는 「폭로」가 있는가 하면 사리사욕을 떠나 국익에 주안점을 둔 政論이 깊은 경륜을 배경으로 도도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학식도 배놓을 수 없는 대목의 하나.

50년대 초 노동당의 맹장 「베빈」이 긴 연설 끝에 「셰익스피어」의 「맥베드」(회곡)에 나오는 몇 구절을

例擧하면서 단어 하나를 잘못 인용, 「처칠」을 위시한 많은 인물들의苦笑을 자아낸 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런 저런 이유로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디즈레일리는 영국의회를 「세계에서 가장 演士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그 신경을 파괴하는 청중」이라고 일찌기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회가 20, 30년 아니 1백여년 앞으로 부닥치게 될 「일」들을 미리 想定, 활발한 토론 끝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동아(85. 11월호)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예언·명언」 중에서-

# 인터스테노중앙위원회

## 참 석 보 고

외국어부

1. 기간 : 1986년 6월9일(월) - 6월13일(금)(5일간)

2. 장소 : 벨기에 브뤼제

3. 한국대표 : ○이동근(대한속기협회지도위원, 동방속기법식창안자)  
○김기영(대한속기협회 이사)

4. 참가국 및 인원 : 20개국 51명(동구권5, 중립국1, 서방권14)

### 5. 주요회의내용

1) 1985년도 중앙위원회 회의록 통과

2) 1985년도 제36차 총회 결과보고(불가리아대표-보고서 인쇄 후 각국으로 송부예정)

3) 1987년도 제37차 총회사항  
가. 일시 : 1987년7월11일 - 7월19일(7일간)

나. 장소 : 이태리 피렌체

다. 주요행사 : ○속기 및 타자 경기대회 심판관회의

○중앙위원회 1차, 2차회의

○개막총회 및 1, 2, 3차 총회

○속기 및 타자경기대회

라. 참가비용 : ○총회참가자 160,000리라

○경기참가자 40,000리라

○87년5월15일 이후 등록시 180,000리라

### 4) 경기대회 규정

가. 타자경기 : 카테고리1 수동, 카테고리2 전동, 카테고리3 전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카테고리1과 카테고리2,3을 합쳐서 둘로 나누자는 서독 주장에 대해 난상토의 끝에 부결하고 원안대로 두기로 함.

나. 속기경기 : ○카테고리 A와 카테고리 B에 각각 0번과 Ⅴ번을 추가하자는 체코 측의 제안에 대해 카테고리 B의 Ⅴ를 삭제하고 표준속도를 카테고리 A는 Ⅳ, 카테고리 B는 V로 정하고 수정의결.

Category A

column	0	I	II	III	IV	V	VI	VII	VIII
increase in syllables per minute	19	20	21	22	23	24	25	26	
1st minute	209	220	231	242	253	264	275	286	
2nd minute	228	240	252	264	276	288	300	312	
3rd minute	247	260	273	286	299	312	325	338	
4th minute	266	280	294	308	322	336	350	364	
5th minute	285	300	315	330	345	360	375	390	
6th minute	304	320	336	352	368	384	400	416	
7th minute	323	340	357	374	391	408	425	442	
8th minute	342	360	378	396	414	432	450	468	
9th minute	361	380	399	418	437	456	475	494	
10th minute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total number of syllables	2945	3100	3255	3410	3565	3720	3875	4030	

Category B

column	0	I	II	III	IV	V	VI	VII	VIII
increase in syllables per minute	14	15	16	17	18	19	20	21	22
1st minute	134	140	146	152	158	164	170	176	182
2nd minute	148	155	162	169	176	183	190	197	204
3rd minute	162	170	178	186	194	202	210	218	226
4th minute	176	185	194	203	212	221	230	239	248
5th minute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6th minute	204	215	226	237	248	259	270	281	292
7th minute	218	230	242	254	266	278	290	302	314
8th minute	232	245	258	271	284	297	310	323	336
total number of syllables	1464	1540	1616	1692	1768	1844	1920	1996	2072

○ 불가리아 대회시 수필속기와 기계속기를 구분하여 경기를 함으로써 수상비율이 불균형 했던 점에 대해 통합하여 경기를 실시하자는 사무총장의 제의에 대해 가결.

5) 회원 : 스페인 대표 Cayetano Serram Martinez씨 대신 Francisco Lango Garcia씨를 중앙위원으로 선임.

6) 1988년 중앙위원회 개최지 결정

일본대표가 요코하마를 1988년도 중앙위원회 개최장소로 제의 한데 대해 동독 대표가 동독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으나 정부당국의 협의가 86년 11월말에나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난상토의 끝에 1987년 이태리 피렌체총회에서 매듭짓기로 하고 보류.

7) 기타사항

○ 다음총회 논문 발표자는 87년 4월30일까지 토의 의제 제출요망.

○ 모나코의 Morado대표는 인터스테노의 발전을 위해서 3,000F 기증.

## 6. 성과

1) 불가리아대표 Valentin으로부터 속기업무의 전자화에 있어서 첨단기술제품인 Stenokey의 Input에 관계되는 자료를 귀국후 송부 받기로 하였으며 Stenokey의

가격(1,500러시아\$) 수출상황(소련에 100대, 스페인에 100대, 미국에 실험용 3대) 기계성능 및 실용상태 등을 청취함.

2) 화란대표 Van Beurden, 서독대표 Ludwig Klein에게 양국의 의회속기 관계자료를 요청한바 귀국후 영문으로 된 자료를 송부 받기로 함.

3) 일본대표 Takusari, 미국대표 J.Foster에게 양국에서의 속기의 사회적 사용실태와 그 법적 뒷받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귀국후 송부 받기로 함.

4) 일본대표 Takusari로부터 최근 개발된 일한, 일영, 영일 자동번역시스템에 대한 정부와 일본중의원의 워드프로세서 도입계획에 대하여 청취함.

5) 참가 각국 대표들과의 사적 접촉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기념품으로 88서울올림픽 배지를 증정하여 한국에서 개최될 88서울올림픽을 홍보함.

## 7. 기타사항

4차에 걸친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각국 중앙위원들이 경기 규정등을 심의함에 있어 자국대표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회의 분위기가 진지하여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으며 속기경기규정 심의과정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글이 있음을 깨우쳐 주었으며 각국대표들

의 모습에서 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일생을 후회없이 봉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8. 건의사항

이번 중앙위원회에 최초로 일부 국고보조로 참석하였으나 대한민국

은 아직도 속기 및 타자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준비가 결여되어 있어 인터스태노에 참가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계속적인 국고보조가 절실히 요청됨.

# 고전의 샘

## 求 言 · 進 書

웃사람은 아랫사람에게 直言을 구하고, 아랫사람은 웃사람에게 글을 써서 바칠 수 있게 되면, 막힌 것이 트이고 가려진 것이 걷히어 상하의 정이 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선행이 이루어지는 데 遺漏가 있을 것이며, 어찌 억울한 일이 다 풀려지지 아니하겠는가?

## 盜 賊

사람의 본성은 모두 착한 것이다. 자기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의 나쁜 짓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적이 되는 것은 어찌 인간의 정이겠는가?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 불변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절실했다면 예의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져서 부득이한 사정에 압박되어 도적이 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백성의 어른 노릇하는 사람은 인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생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 제 철을 놓치지 말게 해야 하며, 백성들의 힘을 손상시킬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수취해서는 안된다. 남자는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을 축적하고, 여자는 입고 남을 만큼 옷감을 소유하여, 위로는 부모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면, 백성들은 예의를 알게 될 것이며, 풍속은 염치를 숭상하게 될 것이다. 도적은 없애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鄭道傳의 「朝鮮經國典」 중에서—

## 全美속기협회 총회

외국어부

(편집註) NSRA (全美속기협회, National Shorthand Reporters Association Convention) 총회가 1986년 8월초에 메사츄세츠주 보스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속기협회에서는 86년부터 계속해서 NSRA잡지(월간)를 무료로 배부받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소개한 신문(Convention News)을 배부선을 통해 입수하여 대회기간 중에 있었던 중요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I. 미래를 예견한 공연세미나

「21세기로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연세미나가 실제 상황모습을 그대로 연출해 가면서 열려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연사인 올리 버씨는 「과학의 발전은 원고를 번문해 내는 시간을 반으로 단축시켰고 또한 법정에서 농아들을 위해 자막(Captioning)을 이용해 소리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고, 비디오테이핑에 의한 속기사들의 대치문제에 대해서 맥피트 씨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또 미래에도 현재의 속기사를 대신하여 비디오를 조작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라고 역설하여 그 대치위험을 최소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비디오프로그램(CLVS)은 NSRA회원만이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NSRA의

회원은 그 장비를 직접 취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고객들에게 훌륭한 비데오그래퍼를 추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의 세미나는 TV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츠버그방송국 뉴스쇼우 방영에 자막을 넣어주는 일을 맡고 있는 조·칼트비스트에 의해 거의 동시에 실제 토론내용에 가까운 자막이 쓰여졌다.

2만의 TV방송국과 1만8,000개의 케이블교환국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이 자막사업은 속기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존속될지는 의문이며, 농아자들을 위한 관심은 실제와 가까운 자막형성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격이 1,000\$ 이하로만 내려가면 주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한다.

속기의 컴퓨터화는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갈 것이며 人工知能計劃(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은

CAT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은 속기사들을 대치시킬 수는 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속기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CAT판매자들이 의기양양해져서 이 계획을 그들 시스템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NSRA의 교육계획이 재편성되어 NSRA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소규모 대학 수준으로 되어져서 거기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학위의 학점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 II. 루이스·길만 여사 퇴임

NSRA 편집장으로 12년간 재직해 온 길만여사의 은퇴기념축하연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NSRA를 대표해서 림·런포라 회장이 기념패를 증정했고 또 87년 이태리 플로렌스에 서 열리는 37차 INTERSTENO 참석경비도 전달되었다.

길만여사는 본협회와도 수차에 걸친 서신교류를 통해 많은 속기문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대한속기협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 III. 속기속도경연대회 (Speed-Contest)

에드워드·바라로씨가 10년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어 속도경연대회를 석권했다. 2등은 작년도 챔피언인 다인·크레이낙 씨가 차지했는데 그는 「220단어 문어체」 부분에서 대

회 역사상 세번째로 만점을 기록했다. 대회사상 처음 만점기록자는 이번 대회 챔피언인 바라로씨로 75년 「280단어 증언」 부분에서 기록했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세 부문—문어체 부문, 법적진술 부문, 증언 부문으로 나누어서 각 5분간 낭독하였고 각 부문에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야 합격이다.

### 1. 220WPM Literary(문어체)

우리나라의 논설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分當 220단어로 총 1,100단어이며 번문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2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 1위 : 다인·크레이낙(100점)
- 2위 : 에드워드·바라로(99.82점)
- 3위 : 칼라·보이어(99.64점)
- 4위 : 제임즈·보울리(99.09점)

### 2. 230WPM Legal Opinion(법적진술부문)

분당 230단어로 총 1,150단어로 구성되어 합격선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 失點단어는 58단어이다. 번문시간은 1시간 30분. 이번의 내용은 「기차테일에 의한 은행파산」에 관한 것이었다.

- 1위 : 에드워드·바라로(99.83)
- 2위 : 칼라·보이어(99.74)
- 3위 : 다인·크레이낙(99.56)
- 4위 : 조나단·영(99.39)

### 3. 280WPM Testimony(증언부문)

분당 280단어로 총 1,400단어로 구성되며 이 부문은 속기하지 않는 질문과 답변(총 낭독 시간에서도 제외됨)도 포함된다. 이번의 내용은 은행강도에 관한 것이었다. 26명이 합격했다.

- 공동1위 : 에드워드 · 바라로, 칼라 · 보이어(99.93점)  
2위 : 다인 · 크레이낙(99.86점)  
3위 : 캔다스 · 브랙식(99.29점)

4위 : 패트리카 · 페리에르(99.15점)

이상 세 부문을 종합해서 심사위원회는 세 부문 전체 합격자 19명을 선발했다.

- 1위 : 에드워드 · 바라로(99.86점)  
2위 : 다인 · 크레이낙(99.81점)  
3위 : 칼라 · 보이어(99.77점)  
4위 : 캔다스 · 브랙식(98.99점)

(요약정리 : 김 주 성)

## 원 고 모 집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회지의 발간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다음 요령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회지편집자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본협회 섭외부(국회속기과) Tel. 788-2373

- ◇ 표지그림 · 사진 : ..... 가로15cm 세로 11cm정도
- ◇ 연구논문.....200자원고지 20~40매
- ◇ 속기실무.....200자원고지 15~25매
- ◇ 회 상 기.....200자원고지 15~25매
- ◇ 수 필.....200자원고지 15~25매
- ◇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일본 중의원 연수기

강 서 홍

(국회입법조사2과)

국회의 연수계획에 의하여 나는 작년 1월15일부터 4월15일(3개월간)까지 일본 衆議院에서 연수를 받고 왔다. 이번 연수는 韓·日 양국 국회의 협력에 의한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올해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년도와는 달리 나는 운이 좋아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을 전액 받게 되었다.

일본국제사업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서 실시하는 일명 JICA자금을 받게 되어 항공료를 비롯 체재비 일체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므로 비행기편도 JAL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월15일 김포공항에서 오후 1시 20분 출발 동경 成田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15시 30분이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보니 고맙게도 국회주재관(李弼宰씨)이 마중 와 주셨고 또한 JICA측에서도 일본여행사의 안내원을 보내주어 도움을 받았다. 공항에서는 리무진 버스편으로 箱崎(하꼬자끼)까지 가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箱崎에 도착하니 衆議院 섭외과장 塩谷(시오다니)씨가 마중 와서 환영하여 주었으나 첫 對面인사에서부터 무엇이냐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는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저 눈치로 무슨 인삿말이구나 하는 잠만 잡고 태연하게 “하이”(예)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그 대답이 정확했는지 아닌지…… 그 대답과 이어서 나도 인삿말을 나눌 수 있어야 도리인데 그 다음부터는 또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솔직한 나의 심정이었다. 외국인과 처음 만나 서투른 회화솜씨로 대화를 하게 되니 긴장된 탓도 있었겠지만 서로 수인사로 통성명만 하고 의자에 앉아 옆에서 입 속으로 말을 하므로 정확한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림하여 짐작컨대 “비행기여행에 날씨도 좋고 고생이나 안 되었는지” 하는 인삿말로 알고 듣고 “하이”(예)하고 대답하였으나, 그 말이 반대의 뜻으로 “비행기여행에 몹씨 피곤하였겠어요”라는 인삿말이었으면

나는 큰 실례를 한 거나 다름없게 된다. 지난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그 의문은 수수께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음에 중의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塩谷과장과 헤어져 JICA의 안내원을 따라 숙소인 東京국제센터(TIC)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 30분경이었다. 그 곳은 JICA에서 지정한 숙소로서 약 1,0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準호텔급이었다.

나는 921호실에 배정을 받고 여장을 풀었다. 방은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싱글침대와 옷

장, 독서용 책상 그리고 목욕실을 갖추어 놓아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다.

이 TIC센터에는 세계 각국(미·영·불·소·대만은 제외)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연수와 있는 사람들로써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가면 마치 인종시장을 방불케 한다. 그 중에도 중공인이 가장 많이 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한국에서도 10여 명이 와 있어서 외로움을 덜게 하여 주었으나 議會연수는 오로지 나 혼자뿐이어서 여러나라 사람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



다.

다음 날(16일)부터 1주간 JICA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후, 연수일정에 따라 衆議院으로 갔다. 연수를 주관하게 되어 있는 섭외과로 가서 연수담당자를 비롯하여 渉外部 각과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섭외과장의 안내를 받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게 연수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중의원事務局(處) 準직원에 해당하는 신분으로 帶用證(신분증)과 직원배지를 받고 그 직원들과 같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연수에 임하였다.

연수 첫날은 중의원 사무차장 주최로 각 部(局)長이 모여 환영회를 열어주어 연수를 받는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도 하였으나 한편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신경쓰게끔 긴장감을 가지게 하였다.

일정에 의하면 섭외부 총무과장(青柳:아오야기)이 일본국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중의원 사무국 조직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각 부의 일정에 따른 순서로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의 각 부에 대한 연수도 딱딱한 강의식을 지양하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또 한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하여 준비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난 번 연수자의 경험을 참고하여 보면 모든 일정이 타이트하게 강의식으로 짜여져서 설명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옆에 앉아 있는 담당자에게 한자로 써서 물으면 해결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말 솜씨도 서툴러 우리말로 우리 국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어로 중의원 여러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로 큰 걱정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내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모르는 말은 사전을 찾아서 체크하면서 정중한 일본어는 구사 못하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대강 설명의 요령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나는 우리 국회의 연혁과 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국회사무처 조직을 참고로 소개하고 시간을 배우고 나니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 순간을 별문제없이 넘길 수 있었던 데 대하여 남다른 고마움을 스스로 느낀 것은 지난 10여년 간의 국회속기사로 근무할 때에 얻은 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일본의회제도의 발족과 구성

일본국회는 舊「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제1회 帝國의회가 소집된 것은

1890년(명치22년)으로서 동년 11월 29일에 개원식을 가졌으며 衆議院과 貴族院의 2원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인 1946년 신헌법에 의한 국회가 구성되어 현재도 마찬가지로 二院制인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院內會派(정파)로서 제1당인 여당은 자민당이고 야당은 제2당으로 사회당이 있고 그 외 공명당, 민사당, 공산당이 있다.

### ○정기회 및 개회식 광경

일본국회의 通常會(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천황의 召集詔書에 의하여 소집된다. 이는 다음 회계년도(매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의 국가총예산과 그 예산을 집행함에 필요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정기회의 회기는 150일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기회는 12월중에 개최되지만 개회식은 1월20일을 전후하여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天皇임석하에 엄숙하게 거행되며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의식을 행한다. 그 의식행사는 천황이 국회의사당에 入·退場할 때에는 의사당정문에 국회의 兩院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총장과 정부측의 내각총리대신을 위시하여 전각료가 양쪽으로 도열하여 영접한다.

개회식에서는 양원을 대표하여 중의원의장이 개회식사를 하고 천황이 간단한 메시지를 낭독하는 것을 관

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그 당일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모든 각료가 참석하여 내각총리대신(首相)이 政府施政方針演說을 하고 大藏大臣은 재정과 신년도예산에 대하여 經濟企劃廳長官은 경제의 동향에 관한 연설을 한다.

이와 같은 시정방침연설은 參議院 본회의장에서도 중의원에 이어 곧바로 행한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각당 代表議員이 질문을 하고 大臣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다. 질문방법은 일문 일답식이 아니며 질문 범위도 각 大臣이 연설한 내용에 한정된다.

대표질문 기간은 통상 2일간이며 질문의원수는 자민당 1인, 사회당 2인, 공명, 민사, 공산당 각 1인으로 6인이 하며, 35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제한을 정하고 있다. 그 순서는 제1 야당인 사회당이 최초의 질문자가 된다.

질문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상대방을 몹시 야유하기도 하지만 자기당 소속의원의 연설이 끝나면 일제히 박수를 쳐서 격려해 주고 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각료에 대한 호칭은 「○○君」으로 통용하고 있으며 회의록에도 「○○議員」이 아닌 「○○君」으로 表記하고 있다.

### ○表決과 投票

본회의의 표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기립표결 때에는 찬성자만을 기립토록 하고 반대자나 기권자수를 점검함이 없이 가결정족수에 달하면 가결선포를 하며, 중요의안에 대하여 기명투표 여부는 議運(議院運營委員會)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의결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행하고 있다. 의장이 기명투표를 선언하면 의사담당 직원은 투표함 2개를 의원 연단 위에 옮겨 놓는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은 白票 반대하는 의원은 靑票의 木牌(백색 또는 청색 바탕에 각 의원의 성명을 붓글씨로 쓴 木牌로서 의원좌석에 비치되고 있음)를 지참하고 연단으로 나아가 투표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직원이 대리하여 해당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좋도록 차곡차곡 쌓아서 計數 결과를 사무총장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결한다.

본회의에는 의사부 직원 뿐만 아니라 섭외부장(국장)을 제외한 각 부장이 의사부 겸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의사업무에 보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기명투표시에 호명도 의사부장이 전담하여 호명하지 않고 비서과장이나 그외 각 부장중 누구든지 편의에 따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의장이 기명투표의 표결선언을 하는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의장석 뒤에 정좌하여 대기하고 있는 警衛長이 기립, 오른팔

을 높이 쳐들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신호를 자 본회의장 출입문의 경위에게 전달하면 경위들은 일제히 출입문을 폐쇄한다. 출입문이 폐쇄되면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은 기명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본회의장 여당의원석 탁자 위에 유독 마이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질의용 마이크가 아니라 의사진행상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의석의 의원만이 의사진행 담당의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의사일정 순서의 변경이나 추가(긴급상정) 등은 사전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절차는 본회의장에서 특이한 요식절차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마이크를 통하여 의사진행담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특유한 큰 목소리로 마치 권투시합 때 링 안내자가 행하는 류의 목소리를 방불케 하여 방청중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본회의방청석은 귀빈석, 공무원석, 일반방청석으로 구별하고 일반방청인은 전용승강기를 통하여 방청인 외의 외부인과는 접촉할 수 없게끔 시설이 되고 있다. 방청인이 쇄도하여 초만원에 이를 때는 경위들이 15분간씩 방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원내의 질서를 정리하고 있다.

### ○예산위원회와 일문일답 질문

그리고 우리 국회와는 달리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 식의 질문을 행하고 있으며, 답변은 대부분 각 부처의 장차관이 나와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자기 소관 사항이라 판단되면 소관 해당국장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어도 스스로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답변을 한다.

또한 예산위원회에서는 총괄질문 때 각 당에서 최초로 질문하는 委員은 각각 그 소속정당의 대표급 위원이 행하는 경우가 많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그 핵심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이 특색이며, 질문위원수와 질문시간은 理事會(간사회)에서 결정파의 위원수에 비례하여 할당 결정하지만 대표급 질문위원이 혼자서 그 소속정파에 할당된 시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1인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는 예가 많다.

이 예산위원회에서는 총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회법상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통상 2일간 열리는데 그 진출인은 학자, 평론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의 간부 중에서 각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선정되는 예가 많다.

또한 分科會도 5분과 내지 8분과로 나누는 것이 통례이며 분과회가

개회되면 위원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예산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희망하는 분과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위원수는 300여명에 달하며 豫算分科심의회에 참여할 때는 豫算委員이 되므로 한 위원이 하루에 각 분과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심의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부에 그 위원배정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이 업무에만 10여년간 종사한 직원으로서 한 분 고정되어 있다.

위원배정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8개분과에 300여명이 시간적으로 중복이 아니되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치 전국의 철도열차시간표를 각 역의 선로 위에 놓고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작업과정과 마찬가지로 힘든 고도의 두뇌회전을 요하는 업무였다.

예산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특이한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회 예산심의 절차와 대동소이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 통과 때에 기명투표식 가결이 행하여진다.

### ○自然休會

휴회는 院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 연시 및 천황 탄신일을 전후한 매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년2회는 본회의의 의결 없이 휴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를 자연휴회라고 한다.

### ○衆議院事務局(處)

중의원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밑에 비서관, 議事部(局), 委員部, 記錄部, 警務部, 서무부, 관리부, 섭외부, 憲政紀念館, 상임위원회조사실 및 특별위원회조사실 그리고 法制局이 있다.

### ○記錄部

위 부서중 특히 기록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部長, 副部長, 事務主幹 아래 4개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186명이다. 速記업무에 종사하는 속기사는 속기감독, 부감독, 주임속기사, 속기사, 속기사보로 구별되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반반 정도이다.

본회의 속기는 5분 내지 10분 교대이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10분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교대시에 언제나 상호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이는 속기사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出·入場시에는 국회의원과 자료를 제외하고는 의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누구나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례는 民憲의 전당인 의사당(본회의장내)에 대하여 신성시하는 뜻에서 행하는 전통이라 한다.

속기편집업무는 속기1과에서 편집 1, 2계를 두고 담당하게 하고 있다. 본회의 회의록 및 각 상임위원회 회

의록은 大藏省 인쇄국에서 인쇄하여 그곳에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 회의록은 일일발간이 아니고 1주일후에야 볼 수 있도록 발간되고 있다. 회의록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중의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속기사양성소

중의원속기사양성소는 1918년(大正7年)에 세워진 이래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의사당내의 衆議院에 있지 않고 차편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東京都內지만 좀도심지에서 떨어진 곳(世田谷區:세다야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校舎는 1962年(昭和37年)에 신축한 것으로서 대지 약 3,000명에 2층건물로 건평 총 206평 규모이며 강의실 6교실 외에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인쇄실, 휴양실, 욕실, 샤워실을 갖춘 훌륭한 시설이다. 그리고 학생기숙사가 별도로 있으며 테니스코트장을 비롯한 운동장 시설도 갖추고 있다.

우리 한국의 속기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고 우리도 언제 이렇게 훌륭한 속기사양성소 시설을 갖추어 볼까 하는 생각을 나는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다.

양성소는 2년제로서 학생모집은 고등학교졸업 자격자로서 10명 정원이다. 신입생 응시지원자 비율은 10대 1 정도라고 하며 합격되면 동경

도내에 집이 있는 학생이라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학과목은 주로 속기를 가르치지만 속기 외에 법률용어, 실무지식, 한문, 국어, 시사용어, 경제, 헌법, 사회, 신문학, 외국어(영어·불어) 외에 체육시간까지 배정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내가 그 곳에 시찰갔을 때는 衆議院 기록부에서 사전에 연락하였는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2학년실기연습교실까지 안내되어 한국 국회에서 중의원에 연수 왔다고 부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아울러 속기사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환영의 박수를 치게 하였으며 나보고 한 마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하였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생활환경은 다르지만 國史의 사실을 기록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중의원의 속기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간단한 인사를 하고 왔다. 속기연습시 번문시간은 15배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의원속기사가 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희망이나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자리가 나지 않아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의회 및 일반회사로 취직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記録部の 연수시는 그곳

사정보다도 내가 우리 국회의 속기관계를 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다. 주어진 일정에 충분하지는 못하였으나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데 만족하였으며, 기록부의 大橋(오바시)부부장, 伊遠(이다찌)주간, 속기사양성소의 毛利(모리)부소장 등 여러분들이 친절한 우정으로 자료수집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오사카(大阪)의 早稻田속기학교 교장선생에게까지 연락하여 귀중한 자료를 구해주었고, 구할 수 없는 절품된 책은 정성스럽게 복사제본까지 하면서 마련하여 주었다.

#### ○남녀 洗浴泉

일정에 따라 지방의회시찰경 관공여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1주간 마련하여 주었다. 新幹線 고속열차편으로 京都府 의회, 京都懸 의회, 大阪府 의회, 廣島懸 및 市 의회를 시찰하고 廣島 原爆피해지에 세워진 평화공원기념관을 돌아보았다. 그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을 모형도와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는 사실을 지면 관계로 일일히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 곳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하였던 현장임을 기억할 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을 남달리 가지게 되는 것도 한민족의 피가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며 기념탑에 묵념을 하였다.

다음 날부터는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혼자 여행을 다녔다. 일본에서 3대 경승지인 미야지마를 거쳐 熊本(구마모토)에 있는 아마쿠사, 九州에 있는 雅蘇山(活火山)분화구를 돌아보고 유명한 別府溫泉으로 향했다. 雅蘇山에 있는 분화구에서도 유황 불기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경치는 가히 장관이었지만, 別府온천이야말로 공장굴뚝 모양으로 천연온천수의 유황개스를 뽑아내는 기둥이 여기 저기 솟아 있고, 그 온천 지하동굴에서 내뿜는 온천수의 자연 분수라든가, 연못과 같이 넓은 온천수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주위를 온통 안개로 화하게 하는 광경은 정말로 감탄을 연발케 하는 장관이었다. 관광중 어떤 곳에서는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주위가 온통 안개로 화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있다가 그 안개가 거치는 순간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움직이곤 할 정도로 마치 온천공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온천 관광코스를 그들은 「地獄순례」라고 일컫는다. 안내원을 따라 관광을 다니다 보니, 鐵輪(간나와)이라는 마을에 일본 풍속으로 남녀가 같이 「混浴」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모처럼 온 바에 호기심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다. 돌아갈 열차시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고 해서 가보았더니 일명 「도루」라고 하는데 진흙온천이라는 뜻이라 한다. 노천으로 집들같이 넓은 뜰에 진흙온천도 있고, 뜨거운 유황천으

로 김만 나오게 하는 곳, 또는 일반 욕탕과 같이 온천물이 있는 곳 등 여러 종류의 온천시설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며 남녀가 아무 거리낌없이 전라로 기호에 맞는 곳에서 온천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는 젊은 여인네는 없고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인네들 6,7명과 남자 10여명이 같이 온천욕을 하며 담소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나도 처음에는 익숙치 못하여 어색했지만 그네들의 특이한 풍속에 끼어보고 왔음을 추억으로 남기고 있다. 그 무엇보다 그렇게 좋은 천연자원을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국가의 큰 재산이라 생각하니 부럽기까지 했다.

여행을 마치고 東京에 돌아오니 벌써 귀국할 날짜가 4,5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귀국준비를 하여야겠다고 이것 저것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중의원에서도 사무총장 주최로 연수중 수고한 각 부의 강사진들과 120여명이 모여 헌정기념관에서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우정을 되새기며 아쉬움 속에 석별의 축배를 나누었다.



# 속기계 이모저모

1986. 2~1987. 2

— 설 외 부 —

## ○死亡

김동운회원(85. 11)

강준원고문(86. 9. 3)

## ○海外出張

강종원회원 : 국회의장 남미3개국(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공식방문  
수행 (86. 2. 10~86. 3. 10)

: 미국의회 하원 Dymally 의원실 파견 (86. 8. 11~87. 1. 10)

이동근, 김기영회원 : Intersteno 벨기에 브뤼계중앙위원회 참석(86. 6. 9~  
6. 14)

오성균회원 : 미주지역 의회제도 시찰(86. 7. 28~8. 16)

고용배회원 : 동남아 의회제도 시찰(86. 8. 11~8. 25)

이동일회원 : 영국, 프랑스 의회제도 시찰(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프  
랑스 경유 86. 12. 26~87. 1. 7)

송기철, 김경만 회원 : 동남아 의회제도 시찰(86. 12. 27~87. 1. 9)

## ○승진

신희동회원 : 속기 사무관(속기3담당)(86. 9. 6)

이윤화회원 : 사무관대우(86. 9. 16)

박보화회원 : 사무관대우(86. 9. 16)

조동식회원 : 사무관대우(86. 9. 16)

윤병직회원 : 사무관대우(86. 9. 16)

권용태회원 : 이사관(87. 1. 26)

---

## ○전보

- 전해성회원 : 국회사무처의사국경위과장(86. 1. 29)
- 서병운회원 : 국회사무처日本해외주재관(86. 5. 20)
- 이태호회원 : 국회사무처섭외국의안과(86. 6. 3)
- 강중원회원 : 국회사무처의사국국제협력3담당(86. 8. 20)

## ○파견

- 박인혜회원 : 대통령비서실(86. 7. 7)
- 권용태회원 : 87학년도국방대학원안보과정입교(87. 1. 10~88. 1. 9)
- 박순필·이승철회원 : 아시아재단공동주관미국의회연수(87. 2. 18~87. 5)

## ○표창

- 김지원회원 : 대통령표창(86. 1. 4)
- 김영춘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6. 1. 4)
- 김인영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6. 5. 31)
- 신건현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6. 10. )
- 전해성회원 : 대통령근정포장(87. 1. 5)
- 성천영회원 : 대통령근정포장(87. 1. 5)
- 채강희회원 : 국회의장표창(87. 1. 5)
- 박대성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7. 1. 5)
- 염덕훈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7. 1. 5)
- 양화자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87. 1. 5)

## ○합격

1986. 3. 23. 시행된 국회속기직공무원채용 시험에서 윤승희(의회), 이도실(의회), 한기수(동방), 배영수(동방) 4명이 합격하였음

## ○퇴직

- 정대길회원 : 올림픽조직위원회로(86. 4. 18)
- 김주성회원 : 호주유학(87. 2. 18)

## ○체육대회

제14회 전국 속기인체육대회가 86. 10. 9. 많은 속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야유회를 겸하여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결혼**

정순화회원(85.11.7). 이정구·정란회원(86.11.29). 이재현회원(87.2.7)

**○속기무료강습**

제38회 동계강습(86.1.13~2.1)과 제39회 동계강습(87.1.12 ~ 1.31)이 동방, 고려, 청량리동방, 수원동방(39회) 학원에서 실시되었는바 그 수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38회	
언어	내용	접수인원	수료인원
국	어	681명	578명
영	어	163명	112명

		제39회	
언어	내용	접수인원	수료인원
국	어	547명	410명
영	어	119명	69명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국어 및 영어 속기관계자료, 학습, 청탁 등 속기에 관한 모든 문의는 본 협회섭외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오니 회원제외와 속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Counsellor) : 본협회섭외부    Tel 788-2473, 2475

## 편집을 마치고

㉠ 1년에 딱 한번 발간하는 얇다란 책 한 권. 그러나 보통 어렵게 만들어지는 책이 아니다. 남의 말 써주는 데는 도사들인데 자신의 글 쓰기를 그렇게 어려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속기계』는 속기 협회의 대변지요, 또 우리 속기인들의 얼굴이기도 하다. 회원이라면 모름지기 협회의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요,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저 아쉽기만 한 마음이다.

㉡ 고려속기법식을 창안하시고 그 보급에 온 젊음을 바쳐오신 김성한선생님의 회고와 한국속기계의 현실에 대한 걱정스러우신 조언은 현직 속기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해준다. 속기문화의 창달을 위해 한 명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글에서 속기인이 걸어야 할 바른 길(正道)을 보는 것 같다.

아울러 이제는 유이(唯二)하게 생존해 계시는 창안자 선생님들(이동근, 김성한)에 대하여 우리 속기인들끼리만이라도 그 공을 기릴 수 있도록 협회적 차원에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바쁘신 중에도 『속기계』를 위하여 좋은 글을 보내 주신 송 현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속기인들이 좀더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임을 깨우쳐 준다. 정보사회는 생각하는 속기인을 요구한다.

㉣ 꾸미고 보니 외국속기계에 대한 특집이 되어 버린 감이다.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속기의 편리성, 정확성, 능률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시피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대책과 함께 선진외국과의 끊임없는 정보교환으로 한국속기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제 완전한 봄이다. 봄이면 겨우내 잠들었던 온갖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난다. 이 봄에 우리 속기인들도 그 동안 움츠려 들었던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고 일어나 보자. 척박하기만 한 이 땅에 속기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오를 날을 기약하면서.

# 회무일지

-1986년도-

- |            |                           |
|------------|---------------------------|
| 1. 13~2. 1 | 제38회 동계속기무료강습             |
| 3. 4       | 제129차 이사회                 |
| 3. 8       | 제19회 정기총회                 |
| 5. 20      | 법인정기보고서제출(문화공보부)          |
| 6. 2       | 제130차 이사회                 |
| 6. 9~6. 13 | 1986년 국제속기타자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 7. 10      | 제131차 이사회                 |
| 9. 23      | 제132차 이사회                 |
| 10. 9      | 제14회 전국속기인 체육대회 개최        |
| 12. 19     | 제133차 이사회                 |

---

## 속 기 계

第27號

1987년 3월 26일 발행

발행인: 박 권 흠  
편집인: 이 승 철

---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Tel : 788-2471~6

---

<비매품>

관인

# 동방속기학원

☎ 765-4266  
수원분원 5-4194

## \* 창립 39주년

- ◆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속기사사설양성소
-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지정양성기관

### 한글속기과

- 1. 본 과—4개월
- 1. 연 수 과—1년
- 1. 자 격—고졸이상

### 영문속기과

- 1. 본 과—3개월
- 1. 연 수 과—6개월
- 1. 자 격—고졸이상

수료후

입법부, 법원, 각 관공서, 각 언론기관, 각군 속기병, 외국인  
상사, 유학시의 필기 및 아르바이트 등 고급취직으로 사회진출  
용이.

# 記 錄 報 國 的 意 志 로



김돌비 선생



李錫演 院長



김춘원 선생

## ♣ 40년간 연구개발되어온 東邦法式

\* GREGG SHORTHAND IS EASY TO LEARN, WRITE, READ.

\* 쾌적한 교육환경, 성의있는 명강의

\* 속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험방식의 강의

국어속기반	영어속기반
기초과정..... 20일	기초과정..... 20일
본 과정..... 4개월	본 과정..... 3개월
1급과정.....10개월	1급과정..... 6개월

- 성적우수자 : ①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전문속기사로 육성  
 ② 시간제 속기업무 및 취업 우선 알선  
 ③ 유자격자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원가입



청량 東邦速記學院

동대문구 청량1동 750. 청량리 로타리 오-서울제과 5층

☎ 965-8222(대표), 965-8223

■ '46년 창안발표된 국내 최고의  
정통 고려속기교육처 !



- ※ 수료후 : 국회 사법부 행정각부처 언론정보기관  
외국은행 무역회사 및 유학·이민 등
- ※ 활 용 : 회의 취재 강의 좌담 강연 비서 설교 방송  
비밀 군대 일기 등
- 지도 : 안정근 (고려속기학 편저) 외 1급 속기사

**International Stenographers Association**

 **관인 고려속기학원**

본원 : 영등포구 영등포 6가 1 - 15 TEL. 679-7114, 679-7115

지원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9 TEL. 392-5373, 312-9489

지방 : 대전 254-8177 청주 4-1438 춘천 52-9714  
광주 232-4363 전주 883-7397 인천 75-7395

270-9074  
270.

##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